



## ‘기축년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 보신각타종과 함께 새해를 맞는 촛불들. (사진-중앙뉴스)



### · 목 · 차 ·

새해인사 권오현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손경수 선생님 임미영 • 7 / 선생님 방문기보성용 • 10 / 기고 · 김상일 • 13 / 감옥에서 온 편지 문경환 외 • 15 / 신행기 · 권오현 • 23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7 / 이런일이 있었어요 • 29 / 재정 보고 • 39 / 회비를 내주신분들 • 40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 ngsim su .or .kr 이-메일 : yangsim su @ha rmail .net

## 자주·평화·진보세력이 대단결하여 반북대결·민주압살·민생파탄 악령을 심판해야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  
2009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양심수후원사업에 한결같은 헌신과 성원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회원여러분 가정마다에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는 정동진이나 백운대만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농성장과 보신각 앞마당에서도 맞았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몸속을 파고들었지만, 1500여 경찰병력과 수백 대 차량으로 철통장벽을 치고 있었지만 2008년 한 해 동안 민중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못된 악령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새해가 되길 염원하는 촛불대열이 속속 보신각 앞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MB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 행동’이 탑골공원 촛불집회장을 떠나 보신각으로 떠났고 광화문네거리에서 있었던 전국언론노조 촛불집회 노조 노조원들이 ‘재벌방송반대’ ‘언론장악저지’ ‘민주주의사수’를 외치며 종각 네거리로 조여왔습니다. 평화박물관 앞에서는 자율학습관련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전교조선생님들의 ‘우리선생님 돌려주세요’ 등 글귀가 있는 5000여개 고무풍선을 만

들어 촛불행사장으로 발걸음은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최혜원 해직교사가 종로경찰서로 강제연행되기도 했습니다 ‘MB악법저지’ ‘아유2MB’ 등 각종 손 피켓과 고무풍선 촛불을 든 대열이 경찰제지를 뚫고 이미 종각마당 뿐 아니라 네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대협 아고라 다함께 촛불연행자모임 안티엠비카페 한청 한총련 그리고 많은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들고 나온 깃발로 종각일대는 깃발의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희망새해를 여는 순간 폭죽이 터지고 수천 개 노란고풍선이 하늘 높이 올랐으며 등 하나하나마다 M.B.O.U.T자를 새겨놓은 대형 풍선 등 30여개도 수만 촛불군중의 함성과 함께 반북대결 민주압살.민생파탄등 2008년 악령을 실어 멀리멀리 띄어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원여러분

잘못된 선택으로 지난 한 해동안 우리민족과 민중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렸으며 민중들의 생존권위협 등 경제상황 악화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실용정부임을 자처하며 국민의 중으로 주인을 정성으로 모시고 경제만은 반드시 살리겠다 했지만 하나같이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명박정부가 극우 보수집

단과 강부자 고소영으로 상징되는 재벌기업, 그리고 역대독재정권의 혈통을 고스란히 잇고 있는 정치집단을 토대로 세워진 필연적 소산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복원’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었고 이미 인수위시기부터 집권 후 국정운영의 방향타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정운영은 한해 동안만도 너무 길었습니다. 보신각 앞마당의 외침은 더 이상 잘못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민중의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와 민중이 요구하고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북대결정책은 당장 중단시켜야 할 우리 민족의 존망이 걸린 지상과제입니다.

대결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불신과 대결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적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가 그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제도로 발전되어온 것을 하나로 사회통합(통일)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 자주의 원칙으로 평화통일의 원칙, 체제제도 사상 이념을 넘어 민족적 대단결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북의 최고수뇌가 역사적 상봉과 함께 어떠한 외세의 간섭 없는 ‘우리민족끼리’ 자주(평화)통일을 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습니다. 7천만 겨레가 환영하고 열광했으며 온 세계가(유엔에서) 기립박수로 환영하고 지지했습니다.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평양과 서울을 오가고 수십 년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금강산관광에다 개성공단이 착공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

강령으로 10.4평화변영선언을 양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약속했으며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구축하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설치를 비롯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장관급 회담은 총리급으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 급으로 격상시켰으며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10.4선언이 실천된다면 사실상 남북은 연합-연방제의 통일시대로 가는 과정이라 할 터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10.4선언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남측이 얻은 경제적 효과라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연구원 김영윤상임연구위원의 흥미 있는 연구발표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유발효과에서 269.3억 달러~407.5억 달러(25.7조~38.9조)규모로서 투입대비 1.7배~3.6배의 이익산출이 기대되며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로 113,3억 달러~172억 달러(10.8조원~16.4조원)까지 산출하면 투입대비 경제효과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 했습니다.(6.25 통일포럼에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예측지수라면 현재 가동 중인 개성공간사례도 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수의 ‘개성공단에서의 2005년~2007년 3년간 생산 및 부가가치를 더한 개성공단경제효과’에 따르면 3년간 투입된 자금으로 기반시설건설정부자금 1510억 원, 한국토지공사 부지조성자금 1,131억원, 입주기업투자금 1,933억원 등 모두 4,574억원이었는데 3년간 개성공단 유발효과는 11억2,000만 달러~14억3,000만 달러,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억6,000만 달러~4억6,000만 달러로서 두 가지 합한 경제효과 14억8,000만달러~18억9,000천만달러는 투자금 4억6,000만달러의 3~4배(환율

1000:1로 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퍼주기는 커녕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경제과탄으로 중소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경제협력만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회생의 절호의 기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6.15 10.4선언은 무시외면하고 화해협력정책을 ‘퍼주기’ ‘끌려 다니기’ 등으로 폄하 왜곡했습니다. 자주, 평화, 통일 민족적대단결이란 남북이 합의한 통일3원칙과 이를 재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선언에 배치되는 한미동맹강화와 동족을 적으로 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촉구하고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수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를 아예 없애려 했는가하면 기구축소를 존속시키면서 반북극우인사로 장관이나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반북대결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핵을 이고 통일하기 어렵다(3.26)’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11.12)’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11.16)’ 라고 했고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북핵문제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확대 어렵다(3.19)’ 라 했으며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북핵시설선제 타격(3.26)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유엔에서 이른바 북인권결의안을 일본등과 함께 공동제안했고 극우반북단체의 대북비방빠라살포를 방관하며 미국·일본에 이어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핵, 개방3000구상’을 비롯하여 이같은 발언과 행동을 통해 본격적인 반북대결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당국자대화가 끊기고 금강산개성관광이 문을 닫았으며 개성공단마저 언제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들이 ‘6.15 10.4선언이행촉구시국농성(11.19~28)’을 청와대 앞에서 벌였고 각계인사 650명 이름으로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시국선언(12.18)’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만 안 될 것입니다. 대결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온 겨레의 지지성원 속에 다져온 남북관계를 민족이나 통일 평화 등에 아무런 비전도 철학도 없는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될 것입니다. 각계각층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 반민족적인 반북대결 정책을 중단시키고 6.15 10.4선언이행을 추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압살기도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출범과 함께 국가보안법 적용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통일운동을 해오던 애국청년학생들과 전교조통일위원회 교사들 통일운동단체와 진보운동단체가 잇달아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에서 세웠습니다. 자주통일운동과 사회진보운동을 탄압하고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 학문에술표현의 자유 등 짓밟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하여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무더기 강제 연행하여 사회단체 대표와 집행일꾼들 네티즌들이 구속 또는 굴구속되어 재판받을 약 식기소로 벌금을 물리는 반민주반인권행패가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YTN사장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앉히고 김연주 KBS사장을 몰아냈으며 PD수첩을 빌미로 MBC를 압박했습니다. 바로 공영방송의 관영방송화-방송장악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대통령은 ‘국가정체성확립’을 말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의 건국이념과 산업화

업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만능주의 등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수정, 극우 인사의 중.고등학교 특강, 전국 일선교사에게 배포한 ‘기적의 역사’ 등으로 반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고 기본인권을 제약 침해 유린할 이른바 ‘MB악법’을 국회에 내놓고 강행처리 하려했습니다. 집시법개정안 불법집단행위집단소송법 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신문법 방송법 과거사위원회 통폐합법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뽑아낸 39개 반민주 반인권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인터넷사이버공간의 언론통제 방송언론장악 국정원권한 확대 등 정권장악과 독재시대로의 법적보장을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밑 한나라당의 직권상정.무더기처리기도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원들이 어렵게 막아냈지만 집권여당은 청와대 입김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 야당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온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 회원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피부로 느낀 가장 큰 고통은 민생경제 파탄이었을 것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어오르고 일하는 사람들의 품삯은 상대적으로 깎이고 있었습니다.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줄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공약’을 하면서 7%의 성장 국민소득 40,000불 10년 안에 7대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묘수라는 것이 재벌기업에게는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비롯한 각종규제완화정책이고 노동자에게는 불법파업엄단 등 노동 3권규제강화와 비정규직 확산 최저임금하향조정정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그 중주국에서 파산선고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여 시장만능 무한경쟁 경제정책을 폈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에서 투기적 거품경제가 무너지며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모든 나라에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달리고 있을 때에도 이명박 정부는 잇달아 도산되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 보다는 재벌기업과 부자들에게 대한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신자유정책의 단초가 되고 있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를 통한 저축과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낡은 경제운용만을 뒤쫓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소수 부유층은 더욱 부를 축적하고 중산층이 해체되고 사회양극화만 심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극소수 부유층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비판하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제정당사회단체 각계 인사 연석회의’(12.4)를 열고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마련 ○적극적인 실업, 고용 일자리대책 마련 ○비정규직, 최저임금노동자지원 ○중소기업,중소상인지원,서민생활안정대책마련 ○농민생존권증진 및 식량자급율제고 등 10대 정책과 감세정책 등 3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제 살리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경제운용의 사회공공성 확대 등 분배정의가 실현되는 구조로 변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했듯이 대북대결정책중단과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 일의 대북적대정책종식(관계정상화 등)

과 동북아평화와 안정, corea반도에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난 해 두 차례(7.10~11, 12.8~16) 열렸지만 9.19공동성명에 따른 2단계조치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행동대 행동원칙에 따라 북측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시설신고, 다른 다섯 나라의 경제, 에너지지원과 미국의 테러지원국명단 해제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했지만 핵시설 검증문제를 놓고 주장이 갈리었습니다. 7월11일 6차수석대표회의에서 발표에서 검증은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한.미.일 세 나라가 시료채취를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남측이 북.미사이의 주장에 중재,조정역을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측이 일본과 함께 6자회담의 '방해꾼'으로 외신이 전했습니다. 그것은 남측이 제시한 '검증의 정서-경제에너지지원연계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성패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포기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미국은 대화의 상대방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고 주한미군기지 확장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군사연습인 키.리졸부.독수리연습(3.2~10) 을지포커스.가디언연습(8.22~30)을 비롯해 크고 작은 합동연습을 일 년 내내 계속하고 있으며 핵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적대정책이 이어지고 주한미군이 남아 있는 한 북미사이의 관계정상화와 corea반도에서의 근본

적인 평화와 안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에게 정부는 새해에도 이른바 방위비분담금 몫으로 7.600억 원을 주기로 했고 5년간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돈으로 LPP협정에 따라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2사단의 이전비용을 충당하게 했습니다. 동족을 겨냥한 미군과 그 시설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개탄스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부시행정부의 군사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국제관계에서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도 '미국대통령'이고 보면 낙관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남측민중의 반전 평화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처럼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문제는 파행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싸웠듯이 6.15 10.4선언이 행과 민주주의사수 그리고 사회진보와 민중들의 생존권 보전을 위해 모든 자주평화민주진보세력이 총단결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빌겠습니다.

2009년 새해 아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현



## 2월 산행

- 일 시 : 2009년 2월 15일(일) 오전 9시
- 장 소 : 북한산 - 쪽두리봉
- 모이는곳 : 3호선 연신내역(구파발쪽 출구)

# 따스한 눈길이 시린 마음 녹여주었어요

- 손경수 · 오영애 선생님을 뵈다 -

임미영 | 후원회 사무국

철수야 머~리 깎아  
라야. 군에 가면 건빵  
준단다~아.

어릴 적 동네 남자  
아이들이 머리깎은  
사람 놀려대며 불렀  
던 노래다.

부산이 고향인 나  
는 어릴 적 논산이라  
하면 그곳에는 머리  
뽁뽁 깎은, 위풍당당  
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경직된 제복  
입고 잔뜩 주눅이 든

모습을 한 군인들과 꺼억 대는 구령소리가 득실대는  
곳으로만 알았었다.

아이를 훈련소로 보내는 날

천안-논산간 25번 고속도로의 연무IC를 지나면 훈  
련병 소집이 있는 날에만 필시 그러할, 각종 음식점으  
로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꾼들이 빨간 비닐막대기를  
흔들어대며 머리 깎아서 썩스럽고 스스로도 낯선 모  
습에 적응하지 못한 징집대상자들과 동행자들을 불  
러들이느라 야단들이었다.

나와 아이는 그 황당한 풍경에 잠깐 적응을 못해 피  
신하다시피 읍사무소로 들어가 마당에다 차를 대놓  
고 현지에 사는 친척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와서야  
우리는 근처 식당에 들어가 80년대 최고의 외식메뉴  
였던 쇠고기 불고기 로 점심을 먹었다. 아마 준비된  
메뉴가 그것뿐이었던 것 같았다. 둘러보니 군데군데  
그저 머리 하나 짧게 잘랐을 뿐인데 어느새 그토록 주



눅이 들어 보이는 입  
영자들이 사람들 틈  
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한꺼번에 모여 든  
사람들 때문에 우리  
는 후다닥 밥을 먹고  
얼른 식당을 나왔다.  
훈련소 정문과 연병  
장근처에는 아이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  
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아직 집합시간이 이

십 여분이나 남았는데도 아이가 가라고 재촉하는 바  
람에 나는 훈련소 정문에 아이를 내려놓고 그곳을  
떠났다.

훈련소에서 빠져나와 선생님 댁에 이르는 길을 달  
려서야 충청도 말씨처럼 완만한 산 아래 펼쳐진 겨울  
휴식기에 든 너를 별관을 볼 수 있었다. 논산에 들른  
김에 손경수선생님을 뵈고자 하여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집에 계신 중이라 오라고 하셨다.

선생님 댁은 동네 어귀에 자리 잡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길로부터 돌아왔을 푸른 기와집은 남향이  
어서 오후 녀의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했다.

오영애선생님도 읍내 장에 가셨다가 내가 집안을  
둘러보는 사이 이내 따라 들어오셨다.

햇볕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제라늄이 붉은 빛깔의 꽃  
을 피웠다. 내가 꽃 이름을 알려드려더니 “꽃 이름도

모르고 겨울에 피어나니까 예쁘다 그러고만 했제,,라며 웃으셨다.

선생님은 들어 오시자마자 직접 기른 속이 달고 노오란 고구마랑 사과를 예쁜 유리접시에 내오셨다.

과도로 사과를 깎고는 직접 만드신 듯 한, 손에 알맞게 잡히는 칼이 참 좋다고 했더니 오선생님이 “쇠가 좋은 건가봐. 참 오래되었네” 하시자 손선생님이 “쇠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 갈아서 그런 거여” 하고 농을 하셨다.

송년회 때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도 못 나누었고 돌아갈 때 인사도 잘못 챙겼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쭙었더니 우리야 잘 있지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두 분은 새록새록 돌아나는 정으로 살고 계신 듯 보였다. 겨울이라 텃밭도 안 가꾸고 한가하다며 요즘 눈이 좋지 않아서 책을 잘 읽지 못하시는데 인터넷에서 그나마 현정세나 자료들을 찾아보신다고 하셨다.

그래도 남편이 있음께 모르는 것 있음 물어보고 도움이 되제…….

내가 뭘 당신보다이는 게 있는감

글씨, 그래도 외국어나 요즘 용어는 내가 모른게 모르고 지나지 않고 꼭 물어보게 되여.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손선생님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오선생님을 결눈질해 보이셨다.

요즘은 오선생님이 서른여덟에 낳은 따님을 훌륭히 공부시켜 출가시키고 남은 두분 이서 부부로 또 동지로 텃밭 가꾸고 아는 것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사시는 모습이 특별히 자랑하지도 않았는데 눈물겹도록 보기가 좋았다. 모습이야 비록 흑백사진 속의 젊은 날처럼 수려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로 또 돈독함으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치자면 그 시절 못지않게 선남선녀이시다.

손경수 오영애선생님이 지금 사시는 곳은 손선생님의 고향이다. 선생님의 윗대 어른들은 논산에서도 손꼽히는 지주였는데 그 힘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에 한 몫을 해내셨다고 한다. 형님이 징병되었을 때 집안어른들이 형님을 통하여 민주에 독립자금을 숨겨서 가지고 가게 하기도 했을 만큼 가풍에서 선생님의 삶의 지표도 자연스럽게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미제의 압제의 시작이었을 뿐 그 자각에서 이후 학생으로서 조국의 자주권회복운동에 투신하셨다.

투옥과 석방을 계속하다가 유격활동을 하는 중 51년에 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만 수감생활을 하시게 되었다. 감옥에서 온갖 유형의 전향공작을 받았으며 아버지로부터 전향 후 사회에 나와 이루지 못한 뜻을 펼 것을 권유받았지만 선생님은 끝내 전향을 거부한 채 4.19이후 20년 감형으로 출소하였다.

선생님이 만기 출소하였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였다.

선생님은 출소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중중의 전답을 토대로 해서 살았다. 선생님은 중중의 땅을 일구고 사는 중에도 타협과 굴종을 모르는 성품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하셨다. 그러나 조상의 덕분으로 힘든 시기를 다 겪어내고 따님이 결혼하고 난 뒤에서야 종토를 사들였다고 하셨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인이신 오영애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신다. 지금은 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땅을 팔기 전에는 오선생님이 비닐하우스농사를 일궈 자립적 기반을 마련하셨다. 사람을 쓸 돈이 없었던 선생님은 손수 힘든 일을 해내셨단다. 일은 일이지만 또 선생님들에 대한 사람들의 좋지 못한 시선을 견디어내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 짐작이 되었다.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단층의 아담한 양옥이었는데 선생님이 환갑이 되셨을 때 사촌조카분들이 선생님집안에 어른이었던 선생님이 변변한 집하나 없어서야 되겠냐며 손수 집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창고 같은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계셨다.

20여 년이나 지났는데 집은 조금 낡았을 뿐 아주 튼튼하고 현대식 구조를 갖춘 잘 지어진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현관에 내려서서 마른 잔디가 촘촘히 박힌 마당 끝에 이어진 이랑 끝은 텃밭은 두 선생님에게는 소 일거리와 사철 내내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따라 두 분 선생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수다를 떨고 어리광까지 부리게 되었는데 두 분 선생님이 나를 마치 친정 다니러 온 딸을 대하듯 허물없이 해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굳이 파릇파릇 새싹 돋는 봄 되면 꼭 놀러오겠노라고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고 말았다 선생님은 지난해인가도 서울서 스무 분쯤이나 되는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자고 대둔산산행을 했다며 기꺼이 오라고 해주셨다.

두 분 선생님은 청춘을 가족의 품을 떠나 조국해방투쟁의 전사가 되어 결사 항전하다가 다시 미제의 침탈로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 땅에서 권력자들의 무자비한 탄압 앞에 내동댕이쳐졌지만, 그런 혹독한 시간을 보낸 선생님에게서 쇠락의 김새는 느껴지지 않았다. 강고한 신념 앞에서 노쇠함은 오로지 육신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보았다.

서울로 돌아가려면 좀 일찍 출발해야겠구나하고 가방을 챙기는 중에 오선생님은 그세 텃밭으로 나가서 시린 손으로 비닐하우스 속에 겨울양식으로 둔 한 아릅미나 되는 배추 뽑고 또 뭐 줄게 없나 하더니 얼지도 않고 새파랗게 살아있는 시금치도 마구 뽑아 다듬어주신다. 나는 미처 거절하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뽑은 시금치를 담아 마당으로 나르는데 줄게 없네 없네

하시며 다시 밭으로 가 상추도 뽑으시고 대파도 뽑아 오셨다.

그것만으로도 송구스러운데 마루로 들어오시더니 마루 한 칸에 둔 농협에서 선물 받은 고구마를 상자째로 가져가라시며 내어놓으셨다.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먹을거리를 가득 챙겨서 외밭순수래에 실어서 차에 얹어주셨다.

이를 어찌! 그저 논산 온김에 인사나 드리려고 왔는데 폐만 잔뜩 끼치게만 된 셈이었다.

난 겨우, 마치 그것이 주신 선물에 대한 보답이나 되는 양 선생님 봄에 꼭 올게요. 건강하세요. 라고 거듭 거듭 말하고 있었다. 정말 내 마음은 그러했다. 봄에 와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봄나들이 가야지 하고 생각

하니까 마음이 절로 따뜻해지고 평온해졌다.

혼자 차를 몰아가는 내가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잔뜩 걱정이 되시는지 도착하면 전화해달라고 당부 하셨다.

여덟시가 넘어 도착한 나는 즉시 선생님께 무사히 잘 왔노라고 전화 드렸더니 다행이라고 저녁도 못 먹고 가서 영서운했다고 하셨다.

내게는 너무나 과분한 선생님들을 뵈 때마다 내 정신은 늘 가을 들녘처럼 풍요로와진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인지! 떠지않은 날 생애 유일한 축복이 되는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 선생님에대한 글은 소식지 176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벽에 걸린 젊은 시절의 사진

## 선생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모성용 | 후원회운영위원



하루가 가듯 한 달이 가듯 또 일 년이지나 2008년 마지막 날 밤 종각이다.

보신각타종에 맞춰 움직인 수만의 시민들 손엔 '아듀2008! 아웃 2MB!' 라 적힌 빨간 종이 피켓과 촛불이 그리고 '일제고사부당징계 철회와 <일곱별 쌤>들의 복직을 원하는 교사들과 시민들의 모임'에서 나눠준 노란 풍선이 들려있었다. 누군가가 대포동미사일보다도 무서워한다는 촛불이 손과 손을 건너가며 켜졌다. '이명박은 물러가라' 는 외침소리는 보신각타종소리보다 우렁차게 새해를 뜨겁게 가슴으로 열었다. 하늘로 노란 풍선이 날아간다. 드디어 2009년이다.

새해가 되면 후원회에서는 장기수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

올해는 지난 12월 산행에서 유영호 회원이 친구가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는데 쌀을 좀 지원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줘 쌀 배달을 겸해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이미 낙성대로 12월 초에 한차례 쌀을 보내주었는데 또 다시....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잘 찾아보면 세상에 작지만 큰 선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 때문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일게다. 지면을 빌어 유영호 회원과 친구 분(미안스럽지만 이름은 모른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쌀은 80Kg가 왔고 네 푸대로 나눠져 있다기에 낙성대에 하나, 봉천동에 한희숙선생님, 인천에 박종린선생님, 파주에 신현철선생님께 전하기로 사무국과 이야기를 했다.

1월 2일 코스는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점심을 봉천동 안희숙 선생님께는 차 한 잔 부천에 계시는 박종린선생님과는 저녁을 함께하기로 하고 파주는 3일에 일산에 불일이 있으시다는 회

장님과 함께하기로 했다.

드디어 2일 용산에서 송지영 회원을 태우고 한강 건너 굴다리 지나 언덕을 넘어 낙성대 만남의집에 다와 가는데 반가운 얼굴이 나타난다. 조순덕 전 민가협 의장님이시다. 우리 회원들에겐 순덕엄니. 순덕언니로 불릴 만큼 친숙한 얼굴이다. 차창을 열고 놀래키렀더니 도리어 먼저 인사를 하신다. 어딜 그리 바빠 가시느냐고 했더니 문상봉 선생님이 족발이야기를 하셔서 시장에 가신단다. 흠, 역시 난 먹을 복은 타고났다. 어라? 만남의집 골목길 주차장이 빽판이다. 김영식 선생님이 새해 벽두부터 낯선 청년에게 무어라고 언성이 높다. 곁에서 들어보니 밤사이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되어 빽판이 되어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직원이 나온 모양이다. 직원은 이곳이 지대가 높아 역류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변명하고……. 뭘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지대가 낮아서 역류가 되면 모를까 지대가 높아서 역류라니 쫓 (아무튼 이 역류 현상은 지대를 낮게 만들어서 역류현상을 풀었는지 며칠 뒤 가보니 해결 되었으니 글 보시며 걱정하신 분들은 맘을 놓으시길) 찾아가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시는 문상봉, 박희성 선생님께 새해인사를 드리고 적잖은 나이에도 처녀같이 여리지만 강단 있는 사무국장님과도 수인사 나누고 나니 마치 함께 온 듯 뒤따라 들어오신 강담선생님까지 덕담에, 웃음에 훈훈해진다. 마당에 강아지 두 마리 역시 새해라고 꼬리치고…….

언제나 정이 넘치는 곳, 후원회의 전통이 살아 있는 곳 낙성대 만남의 집이다.

순덕엄니가사 오신 족발에 소주까지 두어 잔 잘 얻어먹고 안희숙 선생님 맥으로 달려갔는데 전화통화를 미리 했건만 싸인이 안 맞았는지 선생님은 낙성대에 오셨다 하시고 우리는 다음 일정 때문에 선생님 얼굴은 못 뵈고 사모님께 쌀만 내려드렸다. 천식기운 때문에 고생이신 선생님께서 올해엔 좀 나아지시길 바라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사모님 목소리를 뒤로하고 다음번 사랑에 쌀 택배 장소를 향했고 작년 여름쯤 한번 들른 기억을 더듬어 박종린 선생님을 찾았다. 언제나 환한 웃음과 맑고 선한 눈매에 차분한 목소리로 겸양하신 선생님께서는 일 년 열두 달 세끼를 냉면으로 채워도 좋다고 하실 정도로 냉면을 좋아하셔서 선생님을 만나볼 때면 꼭 냉면을 대접해 드린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고 마침 택 앞에 냉면집이 새로 생겨서 그 집을 찾았다. 안색도 눈빛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몇 달 전부터 기력이 떨어지셔서 계속 집에만 계신다더니 한 그릇을 다 비우지 못하신다. 결핵이 재발하셨다더니 식후에 드시는 약도 한주먹이시다. 선생님들의 건강과 나이를 생각하면 2차 송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새해라고 날이 더 길어지지도 짧아지지도 않고 하루는 이십사 시간. 또 하루가 지나 3일이다.

회장님과 대화역에서 만나 신현철 선생님을 뵈러간다. 올해로 세수가 아흔 셋 재작년 처음 뵈 때는 일산후곡마을 작년엔 가좌지구 올해엔 파주로 이사가 잦으시다. 사모님이 흘러가는 말로 사정이 어려워져……. 라며 말꼬리를 흐리신다. 반갑게 맞으시는 선생님께 회장님과 함께 큰절을 올리니 맞절로 화답하신다. 걸음은 힘드시고 귀도 어두우시지만 정신만은 아직도 청년이시다. 보신탕이 드시고 싶다는 말씀에 따라 일산으로 모셨다. 사모님은 극구 집에 계시겠다고 하셔서 선생님만 모셨다. 참으로 맛나게도 드신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한 그릇을 푹딱 비

우신다. 오랜만에 니들이라 하시고 보신탕도 오랜만이라고 흡족해 하신다. 회장님은 이모저모 샘의 삶의 궤적을 역사의 흐름과 맞춰 가시며 질문하시고 신현철 선생님은 이건 회장님만 아시라고 하시며 자신의 삶과 사상을 조용히 풀어 가신다. 꼼꼼히 적어가는 회장님을 보시며 이 건 off-the-record라고 당부하신다. 네네 하고 대답하신 회장님의 약조에 따라 선생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언급할 수 없다. 두어 시간 가까운 식사시간이 지나 선생님을 다시 택으로 모셔다 드리고 회장님과 함께 지난 1월 2일 돌아가신 안재구 선생님 사모님 장례식장을 들리기로 했다. 마침 일산병원이라 가까운 곳에서 목재소를 운영하시는 후원회 산행대장 김재선 회원님 직장에 들러 차 한 잔 얻어 마시며 함께 가기를 중용하니 사람 좋으신 재선형님 흔쾌히 응하시고 후원회를 대표해 셋이서 장례식장을 찾았다. 회장님과 안재구 선생님은 같은 남민전 동지이시고 안선생님 아드님이신 안영민씨가 민족21 편집국장으로 계시면서 후원회에 매달 구속양심수 만큼의 잡지를 보내주기에 후원회와는 2대에 걸친 인연을 갖고 있다. 분향을 하고 돌아가신 장수향여사님의 명복을 빌며 절하고 물러나오니 장례식장을 거의 가득 메운 문상객들중 반가운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자리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눈다. 식사와 술이 나오고 두어 순배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안영민씨를 부르는 소리가 나더니 “핏줄은 승계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사상은 승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박사는 성공한 거야. 아들이 뒤를 이으니 말야 “하는 말을 들으며 과연 나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상을 승계하고 있는지 어떤지 돌아보게 된다. 2009년 벽두에 한 가지 화두를 얻었다.

-- 직접 찾아뵙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과 옥중에서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지키고자 투쟁하고 계시는 모든 양심수들에게 부디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지면으로 대신합니다. --



모시는 글

## 2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126회)

- 일 시 : 2009년 2월 10일(화) 오후 6시
-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 작 품 명 : 밀림이야기하라(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72년 제작, 128분 상영)
- 줄 거 리 : 이북 5대 혁명가극 중 하나. 카프 출신 극작가인 송영 원작의 《애국자》(1956, 원제 《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를 각색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국경 부근의 마을에서 구장(區長)이라는 말단 직책을 맡고 있는 ‘최병훈’이, 합법적인 직위를 이용하여 항일 유격대의 활동을 도와서 일본군 토벌대를 무찌르는데 공을 세운다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최병훈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하공작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정체를 숨기며 활동하는 인물이다. 주제가인 <설레이는 밀림이야기하라>와 삽입곡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네>, <홀로 핀 진달래>등이 유명하다.
- 문 의 :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실용주의 시대의 양심 지키기

김상일 | 전 한신대 교수

‘양심 良心’이란 말은 맹자의 ‘양지 양능 良知 良能’에서 유래 한다. ‘양지 양능’이란 바른 지식을 가지면 반드시 거기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양지와 양능의 두 말은 불가분리적이다.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한다.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주자학적 지성에 대하여 왕양명은 양지양능에 근거하여 지행합일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 동양의 실용주의 철학은 양명학에서 유래하며 구한말 정다산을 비롯한 실용주의자들이 주자학을 버리고 양명학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퇴계학파는 이 양명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를 가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양명학자 정재두의 생가가 있고 무덤도 있다. 그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초야에서 고독하게 자기의 학문을 개척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를 이은 율곡, 정다산, 최제우 등은 두 말 할 것 없이 양명학의 후예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의 통치 철학을 실용주의라고 했다. 1년 전 우리는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많은 기대를 걸어 보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실용주의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도 오리무중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그가 과거 그 어느 지도자보다도 더 원칙주의에 기울어 지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 집안의 가보처럼 전해 오던 보안법을 다시 휘두르기 시작했으며, 실용주의에 걸맞지 않겠 이념 그것도 경색된 이념을 그의 통치 전면에 간판 같이 내 걸고 있다.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북이 오소리 구멍에서 저절로 기어 나오듯이 손들고 나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에 미국에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섰고 지금 전 세계는 금융 위기에 휩싸이면서 민중의 힘이 약진하고 있다. 실용주의의 큰 위기가 닥칠 것이 예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배워야 한다. 진정한 실용주의를 하자면 양지양능을 배워야 하고, 이 양심의 실천자가 이 땅에 아직 살아 있고 이 양심수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햇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그는 전혀 실용주의적이지 않다. 그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내리막길인 데도 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물가가 다 내리는 데

도 오직 한국만은 물가가 내리지 않고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 서양의 실용주의란 원칙보다는 상황을 중요시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용주의 그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 어느 한 통치자의 통치 철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이명박 개인의 통치 철학의 혼돈 그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남은 개방을 하고 있으나 북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신년사에서 말하고 있다. 얼마나 북이



10월 회원시사강좌를 마치고오신 분들과 함께

개방을 하고 있는 가는 평양을 한 번 가보고라도 이런 말을 했으면 한다. 북은 항일유격대의 정신을 생각해서도 생활에서도 실천하자고 한다. 항일유격대는 옳다고 생각하면 곧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정신이다. 다시 말해서 양지양능의 정신이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질 것 같으면 그것을 보자 말자 즉각적으로 구하려 달려드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하며 여기서 공자의 인仁이이 유래한다.

나는 오늘날 남과 북의 진정한 차이는 인간이 사는 가치관과 철학에 있어서 옳다고 알면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물론 지도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썩은 살이 피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가 아닌가를 만들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지도자의 지도철학의 방향도 바로 여기서 유래한다고 본다. 오직 자기의 지지 기반이 되는 상층의 극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실용주의가 이명박 실용주의의 자초지종이라는 것이 들어났다.

진정한 실용주의는 양지양능에서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표준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그 내용도 모른다. 그러나 그 불빛이 희미하고, 그 존재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양심수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알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오직 일심으로 한 평생을 감옥 안에서 보내고 출옥 후에도 양심을 버리지 않는 귀감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진정한 실용주의의 가능성이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배워야 한다. 진정한 실용주의를 하자면 양지양능을 배워야 하고, 이 양심의 실천자가 이 땅에 아직 살아 있고 이 양심수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햇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철들자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는 아마 4년 후 임기 끝날 무렵에야이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문경환 님의 편지

2008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2008년은 민중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진보운동진영이 배울 점을 찾고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남김없이 들여다본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연말연시 사색과 희망의 설렘으로 보내야 할 시기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온갖 반민족 반민중 악법들을 통과시키느라 두 눈 별정계 뜨고 있습니다. 정말 부시에게 신발을 던진 이라크 기자처럼 권력자들에게 뭐라도 집어던지고 싶은 건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올해를 교훈삼아 내년에는 더 예리하고 더 힘 있고 더 성과 있는 투쟁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동구치소 문경환 올림

손정목 님의 편지

권오현 회장님 임미영국장님 그리고 후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세 번째 새해를 맞습니다.

지난 세월 한결같이 보내주시고 과분한 정성과 후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역사가 어떻게 되보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민중과 민족의 고통이 얼마나 배가 될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준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이제 민중의 통찰력과 활력은 더욱 높아져, 2009년 새해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중의 주인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첫 해가 되리라 믿어집니다.

권회장님 이제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 새해에는 모든 후원회 가족 그리고 전국의 모든 양심수 동지들 더욱 건강하시고,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12.24 대구교도소 손정목 올림



## 주제준 님의 편지

민기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현 회장님 상근자 분들께  
 광우병 촛불시위로 구속된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주제준입니다  
 매서운 추위는 없었지만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한기가 느껴집니다. 작년에도 한미 FTA 투쟁관계로 구속되었을 때 양심수후원회의 지지 후원받았는데 또다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 편지로 대신드립니다. 이명박의 반서민 반민주정책이 여실히 12월 국회에 산처리와 입법개정법안에서 드러나는 듯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국민 여론이 63%에 이르고 있고, 실업자는 사상 최대의 317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찬겨울보다 더욱 매섭습니다. 진보, 민중, 개혁세력 모두가 서민들에게 다가설,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촛불이 말해주었던 화두인 소통일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고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는다 고 하였습니다. '길' 을 모색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현 선생님과 어머님들 그리고 상근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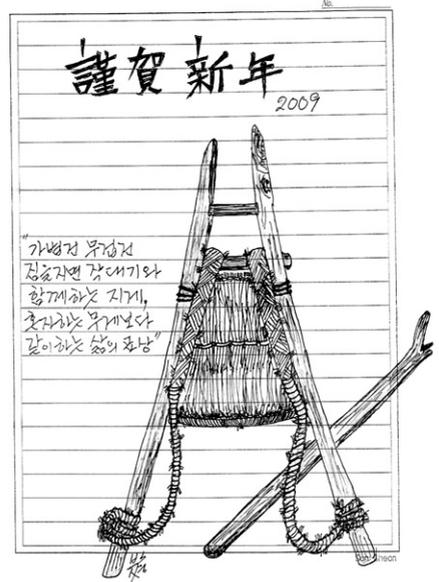
2008년 12월 15일 청계산에서 주제준 드립니다.

## 박경식 님의 편지

민기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현 회장님, 임미영 사무국장님과 회원들께 광주에서 박경식 송구영신의 인사를 드립니다.  
 “파시스트” 등장으로 비뚤게 보는데 자주 편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짧은 생각에 이제야 소식전함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단절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며 꽃꽂하게 살아가는 전국의 구속된 양심수님들께도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들리는 파시즘의 도발소식이 불어오는 삭풍에 더욱 춥게 느껴지는 요즘 건강은 굳게 챙겨야 할 듯싶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신자유주의”니 “권위주의정권”이니 하는데 이것은 다 말장난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쇼정권”이요 파시스트라 할 것입니다. 이름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뉴파시즘” 혹은 ”네오파시즘”이라고 할까요. 전에 우리 동지 중 한 분이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는 현상으로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현상에 즈음하여 드러나는 인간심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을 인용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은 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지만 그 속에 발현되는 인간의식은 본질에서 같다”고 말이죠.

본래 파시즘이란 자본의 탐욕성과 국가권력의 폭압성이 결합된 총체성을 말하지만 근본은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야만성, 폭압성, 천박성 같은 지배의식을 말한다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일부에서 과거현상을 분석하고 현재의 사례와 비교하여 파시즘이네 아니네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이라 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회장님 사고소식 듣고 걱정이 컸는데 ”진보정치” 등 지면에 실린 사진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니 뭐니 하는 시간의 역주행에 회장님 연세에 집회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게 도리는 아니지만 마음 놓였던 이가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새해 모두 신발끈 다시 매더라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28일 광주에서 박경식 올림

오종렬 님의 편지

謹賀新年

마음 따뜻한 이 있어 엄동설한도 봄날로 여길 수 있고  
 의로운 이 있어 난중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양심수후원회와 성원여러분은 누구를 후원하는 이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양심의 응결체입니다.

시대의 양심 행동하는 양심에 축복 가득하실 것입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웃음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무자년을 넘기며 오종렬 드림

이석행 님의 편지

권오헌선생님께 드립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편하고 희망적이기 보다는 긴장과 다  
 짐을 굳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선생님 강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어른들께서도 추운 겨울 옥체 보전하시어 저희들  
 이 비밀 언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일전에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후 지속적으로 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단식 21일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현장을 치밀하게 조직하지 못한 반성 조직적으로 전체의 흐름을 움직이지 못하고 현상에 쫓기듯 집  
 행을 했던 점에 대해 통찰을 했습니다.

헌신성과 열정만으로 헤왔던 게 아닌가하는 생각등 ...

존경하옵는 선생님. 이렇게 지나고 나야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게 저러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밤마다 많은  
 생각과 책을 접하면서 그동안 부족하기 짝이 없던 저를 조금이나마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  
 다.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는 이곳에 오기전보다 조직을 위하고 민중과 국민들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께도 2002년 5월에 영등포구치소에서 편지를 드리고 무려 했수로는 7년 만에 이렇게 편지 드리네  
 요. 꼭 이렇게 감옥에나 와야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리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보내주신 책 그리고 영치품 잘 받았습니다.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하고요

언론노조가 저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투쟁하는 당당한 모습을 이곳에서  
 보면서 함께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뜨거운 결의에 가슴 뭉클하게 저의 정신과 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함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역사왜곡 줄 세우기 교육을 통한 사교육시장이—팽창과 교육비 폭등의 수단으로 전교조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역시 민주노총은 함께 하리라 믿고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썩은 동아줄에 목매 달고있는 이명박 정권의 최후를 우리들의 투쟁으로 만드는 한해가 되어야 모두의 희망의 해가 될 것이라 믿고 그 길을 위해 담담히 걸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구요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오

09.1.3. 서울구치소에서 민주노총위원장이석형 드림

백성균 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백성균입니다.

저는 “미친소닷넷michinsonet” 이라는 사이트운영자입니다. 지난 촛불정국 때 경찰소환에 불응하여 급기야는 이에 항의하는 농성을 조계사에서 약 3달 동안 진행한 후 체포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 온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가네요. 바깥소식이 늘 궁금한 이곳에 양심수후원회의 소식지와 잡지등이 관심과 배려가 너무 소중히 느껴집니다. 권오현선생님과 회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소식지를 펼쳐보며 가슴을 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문득 발견한 구속 중인 양심수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수라는 게 마치 과거 역사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처럼 혹은 멀리서 지켜보았던 굳센 운동가들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양심수’ 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은 이 정부의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누구든 ‘양심수’ 를 여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걸힐 줄 모릅니다.

새해가 밝았다고는 하지만 이곳 구치소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생각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곳 구치소에서 나이를 먹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본들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죄를 묻는다면 제가 들은 촛불이 더욱 높이 치솟아 국민들을 무시하는 저들을 단죄하지 못한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저는 어떠한 죄도 받아들이 수 없습니다.

어지러운 밖의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국회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더군요.

MB의 막무가내 정신은 2009년에도 계속되나 봅니다. 작년 한해 촛불에 시달렸을 사람들인데도 그 참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더 큰 화를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이에 경고하려는 듯 연말 광화문에 나온 촛불 인파는 2009년 촛불의 국민의 힘을 보여주리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새해 희망을 촛불로 열어젖혔습니다. 저 또한 이에 함께 하는 심정으로 이곳에서 지치지 않고 굳세게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새해 희망을 촛불로 열어젖혔습니다. 저 또한 이에 함께 하는 심정으로 이곳에서 지치지 않고 굳세게 지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여러분도 새해 촛불의 힘으로 올 한해 큰 걸음 내딛길 바랍니다.

이 시각에도 밖에서 이곳 구속자들을 걱정하고 계실 여러분의 모습 그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2009년 1.4 백성균 드림



김동완 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양심수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자와 구속되어 있는 동지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주시는 권오현선생님의 편지 내용에 관하여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저는 촛불집회를 하였던 김동완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서신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저희와 같은 처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성원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촛불집회의 재탄생을 알리는 보신각평화시위에 참여한 많은 참가자분들의 추운날씨에도 적극 동참한 분들의 올해의 새해는 희망찬 새로운 일들만 찾아오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양심수후원회의 따뜻한 보살핌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언젠가는 노동운동 및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가 국민들을 위한 조치였던 점이 평가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권오현선생님께서 구속된 양심수들의 뒷바라지에 대하여 죄송하고 무엇이라 고마움을 전하지 못하는 본인이 석방되면 반드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날이 오도록 몸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9.1.13일 항소심결심이 끝나면 어떠한 결과는 올지 모르지만 저에 대한 선고가 종결되면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운날씨에 선생님께서도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구치소에서 김동완89 올림 2009.1.7

곽동기 님의 편지

민기협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실천연대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사무국장입니다. 새해와 더불어 선생님들께서 친히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낙성대 '단남의 집'에서 선생님들을 뵈었을 때가 잊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많은 말씀 나누고 식사까지 대접받고 돌아왔는데요. 벌써 해가 바뀌어 작년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활동한다고 합니다. 멋모르는 MB정부의 뉴라이트 시정잡배들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깃발을 그만 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MB정부가 친히 마련해준 아늑한 공부방에서 시대흐름과 조국의 나아갈 길에 대해, 한국경제의 해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입에서 '대체 저것들은 뭐란 말이냐. 왜 잡아다두었는데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냐'는 비명이 터져 나올 때까지 밤낮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시대가 젊은 청년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자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새해에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생님들의 기대에 화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은 변절자의 변명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청년의 애국의 마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민족민주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난 엄혹한 시절 선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몸소 이겨내신 선생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기가 바뀌고 혹자는 한번도 기후가 바뀐다고 하지만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민기협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의 걸음걸음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시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애국의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MB정권이 날뛰다고 역사가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민족민주운동은 서슬퍼렇던 박정희도 황천길로 보내버리고 신군부 전두환까지 붙잡아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어중이떠중이 이 명박이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MB가 날뛰면 날뿔수록 그것은 한나라당의 명을 재촉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바로 선생님들께서 '국민승리'의 산 증인들이 아니십니까.

부디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개척해 오신 험난했던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을 저희가 잇고자 합니다. 저희의 뒤는 또 저희 아이들이 잇지않겠습니까.

보내주신 편지 매우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격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수감생활을 잘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재판준비를 잘하고 나중에 출소하는 때가 오면다함께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년 새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무사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족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1.6 광동기 올림

\*광동기님은 회원시사강좌 8월강좌를 맡아서 MB정세분석과 미래에 대하여 좋은 강의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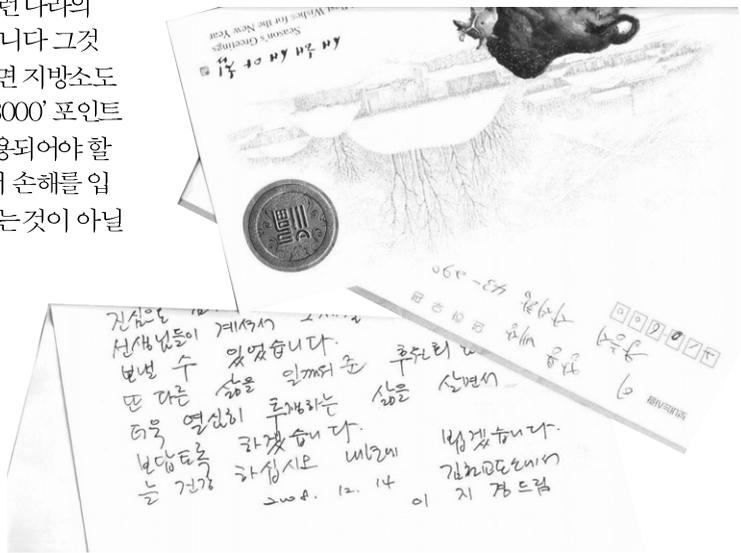


### 이지경 님의 편지

권오현선생님 그리고 향심수후원회님들께 드립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시킴으로서 이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 입과 귀와눈은 귀를 닫으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 있다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대졸의 정부 관리나 경제학자가 내놓은 경제전망은 아무리 틀려도 객관적 분석이 되고 고졸의 무직자가 내놓은 경제전망은 아무리 옳아도 허위사실 유포 죄가 되는 나라 세계 선진국 OECD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법 이런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지방소도시의 상고야간부 출신이 전망한 '주가 3000' 포인트와 지금 펀드를 살 때라고 한 발언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발언에 속아 주식을 취득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는지요.

이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법과 원칙의 올바른 적용이 되는지 두 눈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의 탐욕이 불리운 경제위기에 서 조차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희생과 양보는 커녕 오로지 노동자. 민중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깎겠다고 하는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자기의 임금을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으로 깎겠다는 선제적 조치 없이 노동자의 완전한 희생만 강요하는 저들의 뇌구조는 과연 어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긴 1억 원이상의 연봉을 받는놈들에게 최저임금 10%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기는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는 일주일을 버텨야하는 피같은 생계비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껌값 정도 밖에 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것이 무어라고 저렇게 야단이나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기 때마다 노동자민중의 완전한 희생만 강요된다면 노동자민중도 이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적 대응이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내쫓고 기업들이 정리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류에서 벗어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은 해고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하고 파산하는 기업은 국가가 인수해 노동자 자주관리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생산해내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곧 형기를 마치고 격랑속으로 들어갑니다.

입 눈귀가 다 막혀 어찌 투쟁해야할지 갑갑하지만 여럿이 함께라면 길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옥 사는 2년6개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용기 잃지 않고 꿋꿋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껴주고 염려 배려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긴 휴가 끝나고 돌아가는 현장에서 다시 열심히 투쟁하마로서 동지들께서 보내주신 은혜에 보답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옥중에서 분노의 칼날을 버리고 계실 동지들 밖에는 밖에 투쟁하는 동지들께 맡겨 놓으시고 마음 편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지들의 건강은 모든 이들의 염원입니다

2009.1.11 김천교도소에서 건설노동자 이지경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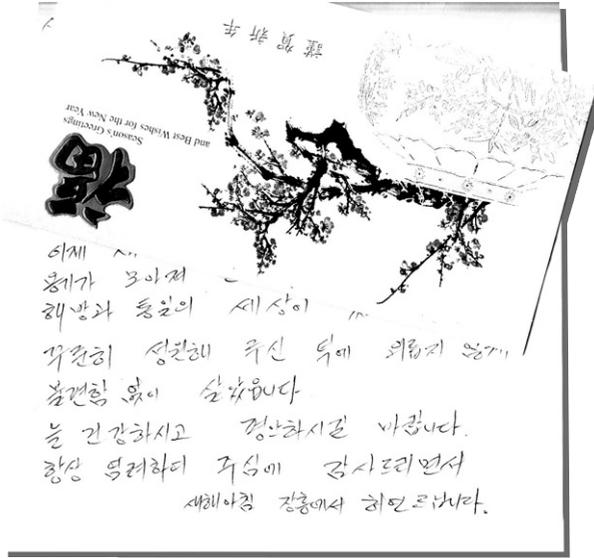
\* 이지경 님은 1.17일자로 출소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謹賀新年



귀오한 회장님께  
완쾌 하셨는지요.  
갑작스런 사고 신상에 놀랐었습니다  
아이가 회장님과 함께 병들었다  
많은 아쉬워 했습니다. 병들었다고  
한해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들었다고  
작은 한걸음 한걸음들이 모여  
조금 통일 나 민족중흥의 길을 열며  
진승이라. 2008. 12. 19 이지경





2008년 촛불이 있어 따뜻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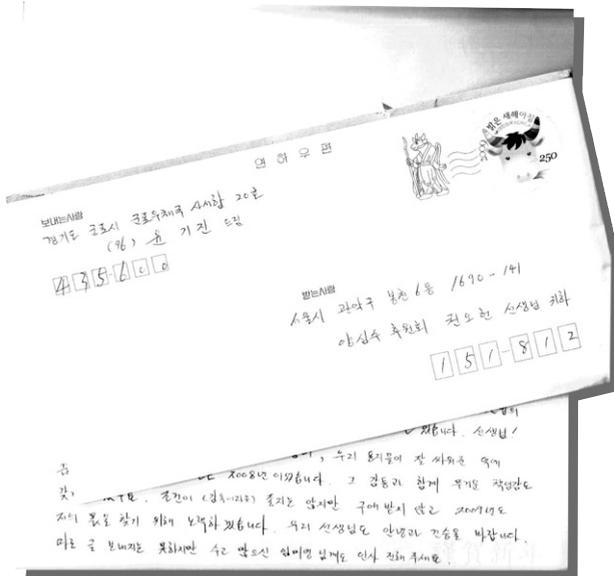
2007년 말에 붙어앉혀 험박한다는  
후한기론 예갈게 하였습니다만  
모디 반중들이 놓이 지켜온  
촛불로 하여 따뜻 하였습니다.

후난리 따뜻함 물 거문  
촛불의 여운인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계몽이  
아직 맑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

더 따뜻함 촛불을 지켜내고  
남은 시인 겨우물 이겨 나가시길...

서울구치소에서  
함용진



## 역사의 숨결을 느낀 산성능선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회장



일요일이어서 대청소를 한답시고 한참 먼지를 털고 있다가 시계바늘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바로 '6.15통일산악회' 모이는 시간이 9시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참으로 낭패였다. 이제 모이는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우이동 종점까지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펼쳐진 일을 거두고 챙겨야 할 일이 산터미 갖기만 했다. 양심수후원회 산행 18년 동안 언제나 모이는 시간이 10시였었지만 지난 8월 청계산 산행에서부터 9시로 당겼던 사실을 오랜 관성에 젖고 있었던 것이다.

신현익 공동산악대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공교롭게도 오늘 산행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 모성용 회원은 늦게 떠나고 있었다고 한다. 김재선 공동산악대장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먼저 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분께 약 20분 늦겠다고 전하려 했지만 하필이면 불발되고 말았다. 이렇게 전화하는 동안 출발준비를 해야 할 아까운 시간만 흘렀다. 서둘러 청소를 마무리하고 점심밥과 반찬을 챙긴다. 사진기 장갑 등산로-프 아이젠을 챙겨 배낭을 꾸린다. 옷을 갈아입고 신발 끈을 조이는데 김재선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9시였다. 늦은 이유를 말하며 25분 늦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큰길까지 내달린다. 151번 버스가 막 떠나고 있다. 택시가 오지 않고 있다. 5분쯤 기다리고서야 택시에 올라타고 기사님께 최대한 빨리 도착하길 부탁한다. 참으로 부끄럽게 31분 늦게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김영승선생님 이규재 범남본의장 이계환 통일뉴스대표를 비롯한 두 달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그

러나 아직도 다섯 회원이 더 오고서야 떠나게 되었다. 공동정범(?)이 되어 조금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원래 김재선 대장하고 산행코스를 논의할 때 우이동 중점이면 도봉산이나 북한산 어느 쪽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린파크' 앞으로 결정하고 참가자 사정을 보아 산행코스로 판단하기로 했었다. 막상 오늘 그 판단을 해야 했었는데 나는 좀 더 무난한 곳으로 갔으면 싶었다.

오른팔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선택기류가 전혀 생각 밖으로 비약되고 있었다. 오늘 참가회원들이 모두 짱짱했던 것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나 어린이가 오늘따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때 현 번 백운대로 가자' 란 기류가 압도적이었다.

이규재의장의 제안에다 김재선산악대장이 절호의 찬스라고 맞장구쳤다.

젊은 회원들은 호기심에 충만하고 있다. 그리하여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깃발을 앞장세워 가파른 아스팔트길을 따라 도선사주차장까지 한숨에 이르게 된다.

이제까지 양심수후원회 산행에서 도선사-용암문-동장대-대동문-진달래능선코스로 여러 번 했었지만 백운대코스는 이런 저런 이유로 포기하곤 했었다. 북한산은 서울시의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와 경기도의 고양시 덕양구에 걸쳐있는 서울의 진산으로 178.5평방킬로미터 넓이의 국립공원으로 15번째 지정된 명산이다. 본디 이름은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이 세모꼴로 맞대어져 삼각산(三角山)으로 불리어왔고 -대동여지도에 보면 삼각산으로 되어 있음.- 이 세 산봉우리들에 아기를 엮은 듯한 바위가 있다해서 부아악(負兒岳)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1711년 조선조 숙종 때 북한산성이 새로 축조되면서 남한산성과 대비 한강 북쪽에 있는 큰 산으로 북한산으로 불렀다고 한다.

역사 속의 북한산은 고구려 동명성왕의 아들 온조와 비류가 나라를 세우려 할 때 '부아악'에 올랐다는 전설과 백제 개루왕때(132년) 산성을 쌓았다고 한다. 삼국 시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각축장이 되었고 신라 진흥왕이 한수이북을 차지하고 북한산 비봉에 순수비를 세

웠으며(555년) 행정구역으로 '북한산주'를 설치했다고 한다. 신라의 명승 원효와 의상이 북한산에 들어와 원효봉과 의상봉이란 지명을 남기기도 했다. 원효는 또한 상은사 삼천사 승가사 도선사를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고려조에서는 태조 왕건이 중흥사를 창건하고 8대 현종은 북한산에서 승려생활을 할 때 진관스님의 은공을 기려 그를 국사로 봉하고 1011년 진관사를 창건했으며 거란이 침공했을 때 북한산 계곡 중흥동에서 피난생활을 했다고도 한다. 고려 말 최영 장군은 중흥성(북한산성전신)을 축조해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건국초 무학대사가 한양 도읍을 위해 북한산을 답사하고 수양대군은 천문관측을 위해 보현봉에 올랐으며 많은 신하 선비 승려들이 풍수지리 학문정진 수도를 위해 이 산에 드나든 기록이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수도 한양이 점령당하고 왕이 피난가는 사태에 이르자 숙종이 1711년 전란시 피난처 및 방어지로 삼기위해 6개월에 걸쳐 7,620보(步-8.5킬로미터)에 이르는 북한산성을 축조하고 이어 외성으로 1713년 탕춘대성을 축조하다 신하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일제 때는 헌병을 주둔시키고 사찰을 불태우며 1927년 백운대 등에 철심을 박아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히늘재에 올랐다. 인수봉(810.5미터)의 위용이 보는 사람들을 압도한다. 화강암 덩어리의 깎아지른 큰 산이자 우람한 바위봉이다. 이 고개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면 영봉(604미터)이고 왼쪽능선을 따라 오르면 북한산에서 가장 험준한 만경대(799.4미터)에 이르게 된다.

고개를 넘으면서 어제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고 있었다. 모두들 조심조심해서 백운계곡을 따라 오른다. 인수산장을 지나 쇠줄간과 돌계단 등을 거쳐 백운대 대피소에 이르렀다. 아이젠을 꺼내 이규재의장에게 한 짝 씩 나누어 쓰자했지만 굳이 마다하진다. 오늘 날씨도 좋았고 백운대 길을 가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아이젠을 갖추어오지 않았다. 그만큼 더욱 조심해야 했다. 다시 얼어붙은 바위길을 오른다.

백운대(836.5미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등산객들과 길을 비켜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마침내 위문(衛門)에 이른다. 6.15깃발도 휘날리고 있다. 이곳에서 백운대에 오르느냐 아니냐로 의견이 갈렸다. 두 가지 이유로 특히 이규재의장이 백운대 오르기를 양보했다. 멀리 경기도 인천 등에서 9시까지 우이동에 도착하려면 두 시간이 더 걸린다.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새벽같이 서둘러 와야 했던 대부분의 회원들이 시장기를 느끼고 있었고 백운대까지 다녀오려면 오르고 내리는 길에서 비켜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점심시간이 더 늦춰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위문을 지난다. 위문은 북한산성에서 가장 높은 표고에 위치한 14개 문 중에 하나다. 사대문(四大門)에 속하는 대동문 대서문 대남문 북문(북문은 대 '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외의 중간문들이다. 위문은 백운대와 만경대로 이어지는 고개이며 백운계곡과 북한산 계곡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위문을 지나 계곡을 타고 내려가면 구과밭에 이르게 된다. 매우 가파른 바위길이었지만 나무계단을 설치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무계단을 얼마쯤 내려오다 계곡 길을 버리고 만경대 허리를 돌아 가는 얼얼불은 비탈길로 들어선다. 조심조심 몇 굽이를 지나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에서 잠시 쉬며 우람한 백운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원래 이 만경대 허리길은 빙판이 아니어도 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곳곳에 쇠말뚝에 쇠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 쇠줄난간을 잡고 가는데는 오른손(팔)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때론 왼손으로 쇠줄을 잡고 뒷걸음질하여가기도 했다. 기울기가 급한 바위길에 쇠말뚝과 쇠줄이 설치된 곳에 이르렀다. 얼음으로 덮여있었다. 조심해서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아이젠을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냅다 미끄러지고 말았다. 오른손으로 쇠줄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져 몸 전체 무게와 그 가속도까지 쇠말뚝의 머리 부분에 옆구리를 꿰하고 부딪혔다. 한참동안 숨이 막혔다. 통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차! 어쩐다. 또 부러진 게 아닌가! 공교롭게도 교통사고로 부러졌던 갈비뼈 바로 그곳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날

병원에 가서 갈비뼈 오른편 팔 어깨까지 X-선 촬영을 해보니 신통하게도 부러지질 않았다)

다시 얼음 덮인 비탈길을 더욱 조심하여 지나고 있다. 그리고 노적봉(716미터)으로 가는 작은 고갯마루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언제냐 어디서 먹느냐고 야단들이다. 그래서 노적봉 오르는 것도 아쉬움으로 돌리고 산행은 이어졌다. 드디어 용암문에 이른다. 580미터 표고에 있는 흥예도 없는 작은 성문이다. 이곳에서 부터는 북한산성 주능선이기도 한 산성길이다. 지금처럼 개보수가 되기 전에는 오히려 옛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고 아직도 손때가 묻어난 낭만적인 산책길이기도 했었다. 수유리 우이동 쌍문동 상계동이 눈 아래 펼쳐진다. 도봉산(716.5미터) 수락산(637미터) 불암산(508미터)이 멀리 건너다보인다. 산행을 해서인지 그리 춥지 않은 맑은 하늘 옛성토길로 6.15산악회 깃발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 그리고 북한산 대피소에 이르렀다.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저마다 가져온 음식을 펼쳐놓는다. 막걸 리가 빠질 수 없다. 어느 회원이 포항에서 가져온 과메기가 좋은 안주감이 된다.

허기진 위를 채우고 있는 동안 속옷을 적신 땀이 마르면서 몸속으로 찬바람이 스며든다. 산행은 이어졌다. 북한산성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장대'에 오른다. 산성을 지키는, 그리고 적진을 살피는 동쪽 장대이다. 보현봉(700미터) 문수봉(715미터)이 서남쪽으로 가까이 보인다. 이 산성을 계속 타고 가면 대동문 부국문 대성문 대남문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 산성주능선에서 갈라져나간 능선으로는 가장 유명한 진달래능선 칼바위능선 형제봉능선들이 있다. 6.15산악팀은 산성주능선을 버리고 대동문을 빠져 나온다. 바로 진달래능선에 접어들었다. 양심수후원회는 해마다 사월에는 이 진달래 능선을 밟았고 4.19묘지를 참배했었다. 붉게 타오르는 진달래와 붉은 피 흘리며 죽어갔던 4.19영령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려 했었다.

오늘 산행에서 소개시간과 산상강연을 오후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뒤풀이 장에서 하기로 했다. 진달래



능선 우이동입구를 얼마쯤 남겨 놓는 곳에서 오른쪽 작은 계곡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백련사를 거쳐 4.19국립묘지 입구근처 모성용 회원이 미리와 예약해둔 뒷풀이장에 도착했다. 산행은 함께 못했지만 모성용 회원과 함께 탁무권회원이 뒤풀이 장에 도착했다. 음식이 나오기 전 작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모성용 회원 진행으로 소개시간 산상강연 모범회원 감사선물이 있었다. 나는 10.11월 산행에 함께 하지 못했던 죄송한 인사말씀을 드렸고 이규재범남본의장과 김영승선생님 등 오늘 산행을 무사히 마친 것을 치하하면서 산행예정코스 사전 통보와 특히 오늘 같은 등산길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는 충고말씀도 있었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최근 방북취재를 다녀온 변화되고 있는 평양모습과 취재상황을 요약 설명했다. 이어 6.15산악회 개근상으로 김재선 산악대장에게 감사선물을 전달했다. 사실은 오늘 참가자 모두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이어 통일뉴스 이광길기자가 산상 강연으로 지난 12.8~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6차 6자회담 제 13차 수석대표회의에 취재차 다녀온 6자회담 진행과정

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른바 검증의정서와 에너지지원연계 발언 등 남측 대표의 6자회담에 임하는 태도 검증문제의 문서화 요구에 한.미.일측 주장에 북측의 정면공격, 회담이 마치고 전에 힐 미측대표의 회담장 이탈, 이른바 납치문제만 고집하는 일측 대표 등 결과적으로 2단계조치를 마무리해야 할 13차수석대표회의가 파행되고 있던 과정을 설명했다.

오늘 산행에는 범민련후원회에서 이규재 이정태 원진옥 이정인 최금남 장병수 강인옥 김세창 이경원님이, 통일뉴스에서 이계환 이광길 오창근 유영호님, 양심수후원회에서 김재선 나순석 모성용 이현수 송지영 권오현이 그리고 우리학교 팬카페에서 박보람 김선민님, 관악에서 김동임님 전독일시사저널편집장 허광님이 함께 했다. 다음 산행은 새해 1월 18일 북한산 형제봉능선을 하기로 하고 지하철4호선 길음역에서 9시에 만나기로 했다.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9년 1월 15일 현재 |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 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강진구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국보	서울구 15	미결		
곽동기	재야	한국민권연구소	실천연대 사건	2008.9.27	국보	영등포구 3402	미결		
권**	개인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 회원 처벌행정 (영등성당앞 투석전)	2008.9.	집시	항소중(10월)		서울구 183	미결
권영기	노동자	건설노조 총북건설기계지부	08년6월 건설기계총파업(해천투쟁)	2008.9.4				충주구 223	미결5
권해진	재야	홍사단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6	집시			서울구 186	미결
권OO	재야	개인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9.18	특공			서울구 161	미결
김**	노동자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 회원	촛불항쟁(영등성당앞 투석전)	2008.8.17				서울구 89	미결
김경수	노동자	건설 인건건설기계지부 영종지회	08년 6월 건설기계총파업(영종 투쟁)	2008.12.8				인천구 2439	미결
김근주	노동자	건설 경남건설기계지부	08년 6월 건설기계총파업(영종 투쟁)	2008.11.21				진주교 353	미결
김명호	노동자	민교협 전 성균관대 교수	석공 사건	2007.1.17		4년		2010년 1월	의정부교 2068 7월(4년)
김수익	노동자	(전)기아차비정규직지회	07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2009.1.6					화성동부서 미결
김철규	노동자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의정부 행정동철거민대 투쟁	2008.11.29					의정부교 1039 미결
김기완	재야	한국진보연대	수사정 보열람	2008.10.7	정통망법			서울구 195	미결
김동규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6	집시			서울구 155	미결
김복기	재야	청학연대	이적표현물 사건	2008.9.27	국보			서울구 179	미결
김석민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8.11.17	병역법	1년6월	항소중	서울구 1289	미결
김성일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국보			수원구 302	미결
김승철	재야	전 노련	이근재 열사 추모 집회(07년)	2008.10.2	집시	1년6월	항소중	인양교 2638	미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광양항노조 조합 설립 관련	2008.4.4	특공, 업방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6	미결
김중구	재야	전 노련	이근재 열사 추모 집회(07년)	2007.10.16	집시, 폭력	1년6월	2009/04	인동교 844	기결
김종안	노동자	현대하이테크비정규직지회(순천)	확약서 이행 촉구	2008.5.10	특공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2	미결
김지협	노동자	기아차 화성지회	임 단협(07년 8월)	2008.10.22	업방폭력			수원구 8	미결
김진필	노동자	대우자동차판매지회	직영영업부분분리반대 농성	2008.1.12	집시업방			인천구 5002	미결
김학근	노동자	이랜드노조(울산)	이랜드노조자권리보장 촉구	2008.11.7	집시, 업방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11	미결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8.28	특공			서울구 173	미결
남인관	노동자	건설 인건건설기계지부 영종지회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영종 투쟁)	2008.12.8		미결		인천구 2247	미결
문경환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국보			성동구 59	미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2.1	국보	3년6월	2010/08	광주교 5051	기결
박원석	재야	참여연대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6	집시			서울구 115	미결
박장태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 활동	2007.1.18	업방, 특공	1년6월	2009/05	충주교 460	기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2006.10.23	국보	2년 6월	2009/03	전주교 2500	기결
박창도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2008.1.7	업방	6월	항소중	부산구 6040	미결
배문석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이랜드-홀에버 연대투쟁	2008.1.7	특공, 집시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35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 반대	2005.5.3	화염병, 치사	4년	2009/05	장흥교 11	기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4년	2010/10	대구교 45	기결
송원재	노동자	전교조 서울지부	08 세월시교폭감성거-정복후회 재	2008.12.31				서울구 197	미결
신성원	노동자	기아차 화성지회	이전택 연대투쟁(07년)	2008.10.12	업방			평택교 203	미결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 반대(07년) 등	2008.1.7	집시, 특공	2년	2010/01	여주교 270	기결
여우성	노동자	전해투	복직촉구 집회관련	2008.5.14	업방, 명예훼손			서울구 1227	미결
여OO	재야	개인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9.11	특공			서울구 151	미결
오승록	군인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1.24	병역법	1년6월	2009/06	여주교 809	기결
오종철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3	집시			서울구 29	미결
유철우	노동자	전 금속노조 세원테크지부	동화오토사내청정 폐업철폐 총파업	2008.12.18				서신구 195	미결
윤기진	재야	법청학련	법청학련, 한총련 불탈퇴(7/1)	2008.2.28	국보	3년	항소중	서울구 96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윤해모	노동자	현대자동차지부	광우병쇠고기수입 반대 총파업	2008.11.8	집시			울산구 30	미결
이상욱	노동자	금속기아지부 화성지회	07기아비정규직투쟁선배지부대투쟁	2008.11.4				수원구 332	미결
이상수	노동자	민주노총 전남본부	07년 뉴코아-이랜드 투쟁	2008.12.17				순천교 270	미결
이을재	노동자	전교조 서울지부	06서울시교육감선거정복반대	2008.12.23				서울구 109	미결
이청우	노동자	금속 동화오토사내하청지회	동화오토사내하청폐업철폐투쟁	2008.12.18				서신구 156	미결
이길준	군인	의경	촛불집회진압 양심선언	2008.8.7	명령불복종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2656	미결
이동우	노동자	기아차 화성지회	임단협(07년 8월)	2008.11.2	업방			수원구 334	미결
이리즈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이란	이주노동자제거반대인정 소송 중	2005.12.9		행정소송 중		화성보호소	미결
이병식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31	업방,특공	1년	2009/01	충주교 455	기결
이상언	노동자	기아차 화성지회	금속노총파업(07년)	2008.9.25	업방,폭력	6월	항소중	수원구 318	미결
이상용	노동자	건설노조(강원기계)	6월 총파업(08년)	2008.9.9	폭력	1년6월	항소중	강릉교 299	미결
이석행	노동자	민주노총	광우병쇠고기반대 총파업	2008.12.5	집시,업방			서울구	미결
이종대	노동자	건설노조(충북)	단체협약 이행 촉구	2008.2.15	집시,폭력	10월+6월	2009/06	대전교 839	기결
이정수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7.12.24	집시, 폭력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20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국보	3년	2009/10	전주교 2510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	2009/10	안동교 3010	기결
이희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또소 농성)	2006.7.13	업방,폭력	1년+1년6월	2010/03	대구교 1154	기결
임삼익	노동자	부산지법 노조	수시정 보월람	2008.8.28	정통방법			서울구 1111	미결
장욱기	노동자	민주노총 전남본부	07년 전남광주건설교공회 공동	2008.3.5		상고중(1년+1년)		목포교 10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7년	2013/10	대전교 4009	기결
장용만	노동자	건설노조(경남기계)	진해지회파업(07년)	2008.8.8	업방			마천교 1200	미결
전 **	노동자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회원	촛불항쟁(영등성당앞 투석전)	2008.9.11		항소중(10월)		서울구 62	미결
전경호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기흥비정규직연대투쟁	2008.10.22	공방			영등포구 3433	미결
전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9.11	특공			서울구 62	미결
정영철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31	업방,특공	1년6월	2009/03	충주교 461	기결
정영철	재야	개인(재미동포)	찬양교무 사건	2008.12.5	국보			수서서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화염병치사	3년+6월+6월	2009/06	안동교 15	기결
정창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1.19	업방,특공	1년6월	상고중	충주교 456	미결
조민재	노동자	금속노조(대전충북)	콜텍-콜트교섭요구점거농성	2008.11.25	집시,업방			영등포구 3401	미결
조순동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22	업방,특공	1년6월	2010/02	순천교 1280	기결
주재준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13	집시			서울구 33	미결
천춘배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2008.10.21	폭력	8월	항소중	부산구 6038	미결
최 **	노동자		08년 촛불항쟁(인터넷 게시물)	2008.6.16		항소중(10월)		서울구 1561	미결
최 **	노동자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 회원	촛불항쟁(영등성당앞 투석전)	2008.8.17		항소중(10월)		서울구 50	미결
최진일	노동자	금속 동화오토사내하청해북부	동화오토사내하청폐업철폐투쟁	2008.12.18				서신구 163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6월	2010/03	대전교 4003	기결
최용근	노동자	일기지 지국장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6.6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구 1561	미결
최한욱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국보			서울구 76	미결
최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8.28	특공			서울구 50	미결
하부영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이랜드-휴버버연대투쟁 등	2008.11.7	집시	2년	항소중	부산구 6020	미결
한기남	노동자	건설 인권건설기계지부영종지회	08년 영종건설기계 해임(영종도 투쟁)	2008.12.8				인천구 1440	미결
한성기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이랜드-휴버버 연대투쟁	2008.11.16	업방	6월	항소중	광주교 3350	미결
한운진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6	집시			서울구 141	미결
허 언	재야	한국진보연대(광주전남)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1.21	집시,특공	1년6월	2009/05	장흥교 88	기결
황정훈	노동자	학습지노조(재능교육)	노조인정임금삭감반대투쟁	2008.11.9	폭력			서울구 3191	미결

01

북이 '12.1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880여명으로 대폭 축소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12.1 조치'는 개성공단 남측 인력과 관련, 관리위원회의 경우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이산 협력업체는 30%, 건설, 서비스업체는 절반 정도만 각각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 지구 내 채용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이북의 <로동신문>은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12.1 중대 조치와 관련 이 조치를 하게 한 장본인이 이처럼 남측 정부라 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한다. 논평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이라는 파괴적 국면에 몰아넣는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책동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남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인사 4,712이름으로 '반민중, 반인권, 반통일,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백기완 통일연구소소장의 여는 말 권오현 민간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임기란 민간협전상임의장 이영민 노무당최고의원 오세철 시노련대표 이시우 사진작가의 폐지촉구 발언과 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6.15, 10.4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시한 유일한 조건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행추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밖에도 △대북 전단(빠라) 살포 등 남북 상호비방 중단 △개성공단 유지 및 금강산관광 재개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 활성화 등을 주문한다.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아 조작사건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57일 동안 농성투쟁 일정보고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부당성을 강조한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최한옥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의 부인인 하유진씨의 발언이 있었음

02

파주 인진각 자유의다리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회원들은 대북 빠라 살포를 강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자기족모임 회원들과 대치하다 충돌이 일어난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 최성용 탈북자기족모임 대표 등 회원 6명은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한국진보연대 30여 명과 부딪치면서 소형 가스총에서 꺼내 공중으로 공포탄을 1발 발사하는 등 민행을 부리다. 경기북부진보연대 회원의 머리를 상처를 입혀 병원으로 후송되다. 한국진보연대는 "대북 빠라 살포 중단하라", "6.15.10.4 선언 이행하자", "개성공단 살려내자", "반통일매국단체 즉각 물러가라"고 외치며 빠라살포를 저지한다. 시위가 끝나고 진보연대 회원들은 망매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에 빠라를 살포를 방관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를 비난한다.

강남성모병원으로 고 광태영선생 빈소에 문상 다녀왔습니다

다 백범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응징했으며 박정희기념관 반대국민연대를 이끌어 왔고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고인은 오랫동안 지병인 당뇨병 등으로 투병을 해 오다 12.1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통일애국지사 고 광태영선생민주사회장'으로 하여 12.4일 9시 영결식 12시 마석묘관공원열사묘역에서 하관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호현 권오현 임미영 문상 다녀왔습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주관한 노동자대회전야제 후원주점수익금 일부와 후원회가 함께 하여 국가보안법 쫓돌집회 관련 양심수에게 겨울을 맞아 방한물품과 영치금을 발송하였음.

03

세종로 통일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공동으로 '빠라살포 비호 통일부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빠라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한다. 한도수전선의장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중단 촉구 발언 윤희숙한정부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 미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북한의 변덕에 의해 휘둘리는 과거 방식은 (이제)변해야한다'고 망언을 하다. 또한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국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일부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와 관련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며 '경찰의 물리력으로는 막지못한다'고 망언하다.

04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민주노동 진보신당 사회당 등 범야권과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연석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구체적으로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적극적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마련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마련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 '10대 정책'을 요구하다.

강남성모병원장례예식장에서 장례위원 등 각계인사 50여 명이 함께 하여 '통일애국지사 고 광태영선생 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진행되다. 한찬욱 사월혁명회사무처장 사회로 김시현공동장례위원장의 조사, 박기서 '효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운영위원의 약력소개,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추도사, 양희철 전민동회원(비전향장기수)의 조사 낭송이 있었고 정동익 사월혁명회상임의장의 호상인사, 장조카곽규평씨의 유족인사말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참석인사들의 헌화가 있는 다음 고인의 운구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을 거쳐 마석묘관공원열사묘역에서 하관식을 가졌음

만남의 집에 계신 출소장기수 문상봉선생님께서 여든넷 생신을 앞당겨 조출한 생신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지병으로 바깥출입을 거의 하실 수 없는 선생님은 마당 산책과 약물치료로 병에서 회복 중입니다. 이날 박희성 김영식선생님을 비롯하여 안희숙 강담 선생님 권오현 김호현 소수영 모성용 임미영 함께 선생님의 건강과 조속한 승환을 기원해드립니다.

☞ 서초구 서울고등지방법원 앞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한용진 공동상황실장 김동규 정책국장 권혜진 홍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차장 백성균 미친소닷컴 대표의 공판에 앞서 '촛불구속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 영등포 대영빌딩 3층 전교조 회의실에서 '올비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과거사위 통폐합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역사정의 부정 범죄행위 은폐시도 과거사진상규명 무력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석회의'를 열다. 민간인학살전국유족회,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유가족 60여 명이 참가하여 과거사 역사확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다.

05

☞ 경기도 고양에서 수배 중이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부터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는 중에 조계사로 피신하기도 했으나 지난 10월 29일 촛불 수배자들과 함께 조계사를 빠져나와 모처에 은신하면서 활동해왔다.

☞ 안동교도소로 모성용 변의성회원이 이진강 정창윤님의 면회 다녀왔습니다. 이날 장소이동접견 관련하여 소측과 맞서다 교도소내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식 중인 정창윤동지는 만나지 못하고 이진강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지난 호 소식지 보십)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시고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소선 여사의 팔순을 맞아 행사 준비위 주최로 '이소선여사출판기념회 및 팔순잔치'가 열렸음. 오도엽씨의 구술기록집인 '지검도록 고마운 사람들'이 책 증정과 이소선여사의 인사말씀 많은 분들이 축하팔씀이 있었음. 유가족 민간협회분들을 비롯하여 박용길장로님 강기갑민주노동당대표 김근테 전의원 등 사회각계인사 600여명이 함께 했음

☞ 국가정보원은 당국의 허가 없이 이북에 다녀오고 미국에서 이북인사들을 접촉 등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미국영주권자이며 '전쟁반대시카고협회' 회원인 정영철씨를 구속했다고 밝히다. 국정원은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씨가 실천연대 김승교공동대표와 연락하고 있었음을 밝혀내고 지난 10월 그의 국내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히다

06

☞ 북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6자회담과 관련된 문제로 10.3합의 이행이 마감단계에 이르도록 자기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이 회담에는 계속 주제넘게 참가하겠다고 설치하는 것이라며 참가국 중 유일하게 경제 에너지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할 정도의 명분도 자격도 없으며 오히려 공동의 목표실현에 저해만 줄 뿐"이라고 일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어 '실사 일본이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염치없이 회담장에 찾아온다해도 우리는 일본을 참가국으로서 치부하지 않으며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

☞ 서고동 경남벵딩홀에서 양심수후원회회원인 신랑 김호남과

신부 고광희님이 양가부모님과 친척친지들이 축하를 받으며 회족을 밝히다. 특히 신부 고광희님은 양심수후원회에서 사무공간사로 헌신하였으며 신랑 김호남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투쟁구장으로 연대항쟁과 관련육고를 치르기로 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한대표가 주례를 맡았으며 모성용총장학이승미 변의숙 이정태 임미영 외 많은 회원들이 두분의 한가정 이름을 축하하다

☞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친 재벌이명박 독재정권의 공안탄압 및 이이석행의 원장 불법체포구탄기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 공안탄압 중단하고 이석행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150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 한 가운데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MB악법폐기 서민대책추구 민주노총총력결의대회를 열다. 대회결의문에서는 우리 80만 조합원이 노동자의 선봉이 되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결의하다.

☞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노총 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공동주최로 '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국민대회가 열리다. 이날 집회에서는 대규모 플래시몹 퍼포먼스로 준비되어 진행된다.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명동한 가운데 길게 늘어선 참가자들은 국민이 승리한다'가 적힌 깃발이 지나가면 연달아 쓰러지는 파도타기 플래시몹을 연출하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 10개월을 '구난에 준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경제 불안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서민생활 냉정적이념대결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평화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비판하다. 또 강만수, 어청수, 최시중 파면과 내각총사퇴를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명동알대를 행진한 후 "뭇살쥔다, 갈아엎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6시 40분 경 해산하다.

07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식당에서 평통사 주최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인사평화추진위원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강정구 교수의 평화키예'가 열리다. 여는 공연으로 정미영님의 플루트와 오카리나연주와 함께 한 분들 소개, '오-평화' 주제의 영상상영, 강정구교수의 '북테러지원국 해제이후 한반도 평화협정전망과 과제'란 평화이야기가 있었음. 이어 2008년 평화협정운동돌아보기에서 추진위원들 소개와 활동사례발표, 무건리 훈련장확대반대투쟁을 주도해온 무건리 주민대책위 주병준위원장의 상황보고, 민중가수 박항미 추진위원의 노래공연 등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조출환 송년 나눔자리가 이어졌음.

08

☞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제6차 6자회담 제3차 수석대표 회의'가 열리다. 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 각각 수석대표와의 양자협의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룰 토론의제 3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검증 문제 두 번째는 제2단계 남은 행동 이행하는 문제, 세 번째는 동북아평화안전체제 문제"라며 "6자회담은 지금 전진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만 불확실한 요인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회담 전망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들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도 했다.

☞ 서울 종로 국제정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자소득 탈세 덮어주는 국세청구단 기자회견을 열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1조 193억 원을 불법 축적, 이 중 2006년 말 기준으로 6500억 원을 계부지해 1,000억의 이자수익을 취득했으며, 이에 따른 소득세 120억 원을 포탈했다. 2007년 4월 시민사회단체가 주한미군의 탈세를 신고하자, 국세청은 19개월 만에 한미조세조약 13조 3항을 들먹이며 '법인원천징수에 대해 '추징세액 0원'이라는 비과세 통지를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이자창출을 위해 계부자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같은 민간상업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2008 한국인권대회'가 진행되다. 백승헌 민변회장의 인사말 안경환국가인권위원회장의 추사에 이어 1부 2008년 인권요약 보고 및 토론 2부 인권집중토론으로 나누어 진행하다.

과학기술부가 지난 10.11월 두 달 동안 전국 일선교사에게 배포한 현대사영상물에서 419혁명을 '4.19데모'로 폄하하고 이승만 박정희독재체제를 오히려 찬양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회(국무총리도공동대표임)'가 제작한 이른바 '기적의 역사'에는 포항제철준공 경부고속도로개통 등 산업발전 변화에 방점을 두고 60~70년대 민중들의 반독재투쟁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2000년대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청계천복원사업 등은 있었으나 6.15 10.4선언은 빠져있었음

여의도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100여 명이 '비상사국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침막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농성장 주변에 배치돼 있던 80여 명의 경찰병력이 강제로 밀고 들어가 천막을 철거했다. 천막은 4개 기둥이 모두 부러졌고, 참가자들은 농성침막을 깔고 앉아 경찰의 강제철거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다. 최형권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희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불법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노숙농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다. 이날 '비상사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는 정광훈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 윤금순 공동대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이수호 최고위원, 오병윤 사무총장, 진영욱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김지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다.

09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 미디어아트 회의실에서 '민주주의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는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 2008 표현의 자유 선언을 발표하다. 전문과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2008 표현의 자유 선언'에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망위적 억압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화 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 미디어 운동 단체들은 일반 시민의 인터넷 게시물, 댓글, 블로그와 미니홈피의 포스팅(게시물 등록) 등 인터넷 미디어와 방송, 영화 등에서 발표되는 일반 시민의 표현물을 '비영리적 시민참여 콘텐츠'로 명명해,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심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다.

서울 미 대사관 인근 한국통신 앞에서 평통사양심수후원회 범남본 등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제11차 반미연대

집회'를 열고 한.미당국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국민혈세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다 대려야 한. 미 안보정책추진협의회(SPI) 중단을 촉구하다. 또한 korean도 평화협정 정세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다. 지난 10.9일 미의회조사국(CRA)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비로 7억 5천만 달러만 부담하고 대부분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하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1조원정도 건설비만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 및 이사비용 13조 3천억 원 중 약 12조에 3천억 원 부지매입비 1조 105억 원 등 15조 6928억 원을 부담해야 하다.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서울지역 공동행동' 발족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투쟁을 위한 서울지역 1차 공동행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해 남부민중연대, 다함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범민련 서울연합, 민권사회연대, 북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서부민중연대, 서울실천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총학생회연합, 전국학생행진, 중부민중연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총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지역 공동행동에 함께 하다. 강홍준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의 발족배경설명에 이어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정호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공동낭독하다. 이들은 서울시전 지역을 축소 한 지도 모형에 '재벌 천국', '최저임금 삭감', '시대착오적 공안탄압', '의료민영화', '부동산규제완화', '집회자유침해 법안' 등의 스티커를 붙이며 서울이서민과 민중들이 살기 어려운 '지옥과도 같은 곳임을 알리는 상징의식을 펼치기도 하다.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49개 단체가 모인 (준)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공대위는 청와대와 교과부가 출판사에 부당한 외압의 즉각적인 중단과 교과부의 수정 지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부당한 교과서 교체 압력 중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역사교육의 전문성 보장,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제작한 '기적의 역사' 영상물 즉각 회수를 요구하다.

광화문우체국 6층 북한자료실에서 장기수선생님과 양심수 후원회가 함께 하는 이북영화보기가 있었음 참가자 김해섭 변숙현 송세영 이순영선생님 김래곤 한찬욱의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고수리행에서 정당들의 역할에 관한 북남공동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성원들과 강기갑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의 민주노동당대표단이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지는 의의와 그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 선언들을 고수리행해 나가는데서 정당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들이 있었다고 하다. 토론자들은 북과 남의 모든 정당들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을 위한 공동결의문이 채택되었다.

10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를위한비상국민행동공동으로 세계 인권선언 60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 MB악법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이 법안들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한편 입법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을 밝히다.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여는 말, 유성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영순민주노동당최고의원의원 등 결의발언에 이은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11개 법안은 집시법 개정안, 불법 집단행위 집단소송법, 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신문법, 방송법,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이다. 참가자들이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은 정동 경향신문사 앞 도로를 점거하고 이들을 막아 나서 반MB악법반대 구호를 외치고 해산하다.

재일총련기관지<조선선보>는 베이징 6자회담 진행상황을 보도하면서 '과거에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남조선측이 이명박 정부 이후 <해방군>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조선선보>는 "6자회담, 허물어진 남북공조라는 베이징발 기사에서 6자회담에 임하는 남조선의교관들이 북만관계를 차단시킨 이명박정권의 대북 대결노선이 다국간 외교의 전략까지도 그대로 전환시킨 듯하다"며 김숙남측대표의 '경제보상-검증의정서연계' 발언을 호되게 비판하다.

과주 임진각에서 경기북부 진보연대 주최로'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경기북부 1000인 선언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6.15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 촉구'를 주요 구호로 내건 '1000인 선언운동'은 북한인권법안 폐지,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14개의 인권단체 주최로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란 주제의 '2008 인권선언을 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2008 인권선언은 크게 전문과 29개의 조문으로 나뉘며, 각 조문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할 권리(1,2조)', '사람답게 살 권리(3조)',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 내용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7조)', '집회 시위를 할 권리(18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명숙활동가 사회로 박태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취지발언 빈곤사회연대 조승화활동가 등 각 부문 활동가의 선언이 있었고 이주노동자 방송 MV방송 민우씨 장애인여성공감 김광이활동가의 "2008 인권선언"을 함께 읽다.

이북의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화를 바란다면 반통일적 정책에 대해 사죄하고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뼈아프고 살포시위를 비롯한 온갖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날 매체는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김하중통일부 장관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며 대화를 촉구한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북에 대한 '전쟁연습', '인권소통', '뼈라살포책등' 등을 언급하며 "북남관계가 오늘처럼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일당의 시대착오적인 반북대결책동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 이어 "외세와의 '동맹 강화만을 떠들며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는 이명박 일당이 '정권의 자리에 있는 한 그 어떤 북남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북남관계가 오늘의 파국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응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1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전용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청원하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체결한 8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양국 간 협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의결시장을 무시하면서까지 체결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주장하다 이번 청문회 청원에는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하여 이미경, 문학진, 안규백, 최규성, 최문순, 이종걸, 천정배, 최영희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 광석숙, 홍희택, 권영길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등 총 13명의 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참여했다.

탐골공원에서 민가협 736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이영삼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공동의장의 세계인권선언 60년과 오늘의 인권상황내용발언, 서경순 전상업의장의 양심수석방 촉구 발언 등이 있었음

12.8~11일까지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6차 6자회담 제 13차 수석대표회의가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2단계조치의 마무리를 못한채 회담을 마친다. 의장성명에서는 02단계 조치의 완전한 이행 0코리야반도비핵화검증 0동북아평화안보의 지도원칙 '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한 토의를 벌였다'고 밝히다. 이 밖에 러시아가 의장국인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를 내년 2월 모스크바에서, 남측이 의장국인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회의를 적절한 때 열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북 <노동신문>은 미국의 F-22스텔스기 배치증가와 남측정부의 패트리어트미사일 구입에 대해 '정세로 전쟁국면으로 물고 가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미제가 최선에 F-22스텔스전폭기 3개 대대를 태평양지역에 증강배치하는 것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임의의 시기에 북침 핵선제공격을 가하려는 모험적 망동 '이라며' 이명박일당은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하는니 신형무기정찰기를 끌어오느니하며 무력증강소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하다.

검찰은 서울시 교육감후보였던 주경복후보지원혐의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전교조 서울시지부 산하 5개지회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 대의원대회의록 등의 문건을 압수해가고 한편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서울 교육청 앞에서 전교조교사파면 해임과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파면해임을 철회하고 공정택교육감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하다.

12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 전교조 사무실에서 2009년 창립 20주년, 합법화 10주년을 맞은 전교조를 이끌어갈 새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전교조의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다. 정진후 당선자는 전교조 내 '참교육실천연대' 출신으로 3차례 해직과 복직을 겪었으며, 경기지부장, 전교조 감사 위원장 등을 거쳐 제 3대 현행 집행부에서는 수석부위원장

을 맡았다. 김현주 당선지도 제13대 전교조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전남 마감된 결선투표 결과 조합원 7만 7천 941명 중 5만 9천 899명이 투표해 기호 1번 정진후.김현주 후보가 전체 유권자의 51.7%인 3만 81표를 얻어 48.3%(2만 8천 178표)의 지지율에 그친 기호 3번 차상철이현숙 후보를 2천여표 차이로 따돌리고 제14대 대표자로 선출되다.

13 민생민주국민회의회의(준)추위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생파탄 예산안 강행차리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삽질예산 형님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다. 이보다 앞서 여의도 농성장에서 한국진보연대 대표지회를 열고 지난 8일부터 진행되어온 농성을 이날로 마치기로 하다.

13 한나라당은 이날 밤 늦게 국회본회의장에 자당의원들만 몰래 들어가 예산관련법안들을 무더기로 강행차리하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하에 중부세법개정안 등 13개 예산부수법안을 개의한 치 30분만에 출속으로 처리하다. 이보다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등의 의원단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강행차리에 항의했으나 한나라당의원들에 의해 폭력으로 끌려나오다.

13 중국의 친강 외교부부대변인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 '핵의 불능화와 경제-에너지지원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일본교토통신이 보도하다. 미국수석대표 힐차관보와 김숙 남측대표가 검증의정서와 에너지지원연계성발언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 김계관 외무성부상은 '에너지지원을 중단하거나 공급하거나 개의치 않는다'며 '그것이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도 불능화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히다. 또한 알렉세이 보로디브키 러시아외무차관은 '북의 핵검증단계가 마련될 때까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남한이 북에 대한 중유선적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국정부의 발표에 우리는 놀랐다'며 '그러한 조치에 러시아대표단이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다.

14 '2008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송년모임'이 광화문 지리산호텔저 집에서 많은 선생님 회원들 18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다. 이날 출소장기수 선생님을 비롯하여 회원 각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후원회 송년회에 와서 한해 사업을 격려하고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하며 자리를 의미있게 채워주셨습다. 모성용운영위원 사회로 민족민주열사와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를 염려하는 시간을 갖고 권오현회장님의 송년모임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반민주반인권반통일행패가 이어지고 있는 긴박하고 엄중한 정세 속에 우리의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희망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오신분 소개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제주도외 고성화 선생님은 건강관계로 오시지 못하고 축하메시지를 보내오셨고 부산에서 안학철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 사천에서 송송학선생님, 대구에서 이학천선생님 여러분, 광주에서 서옥렬선생님과 여러분, 영광에서 최공식선생님, 전주에서 윤선남선생님, 대전에서 이상근선생님과 여러분, 음성에서 김동섭선생님, 홍성에서 신원수선생님, 논산에서 손준수.오영애 선생님 등 멀리서도 그리고 서울 경기지방에 계신 오랜 육고를 치루셨던 마흔여덟분의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또한 각계인사로 이종린범남분명예회장과 이규재의장을 비롯한 여러분, 김규철 6.15서울시본부의장, 진관스님, 김상일 전한

신대교수, 황건노중선 전시월혁명회 상임의장, 이기형민족시인 강정구교수, 노수희 범민련서울시의장, 이계환 통일뉴스대표, 오병철 제심관관장, 양요순수녀님, 강순정선생님, 인혁당우측으로 신동숙 강순희 유승욱 이정숙선생님, 남민전우측으로 김재원 이영자님, 비전향장기수송환가족으로 홍명자 이혜옥님, 유영소목사님, 홍성순 전대전중남양심수 후원회장과 여러분, 한기명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장과 여러분, 이영상임의장과 민가협어머님들, 양심심가족으로 윤기진의 어머니와 황선씨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부부, 구선옥 일심회가족 송현아 이재춘씨등 평통사 김종일사무처장 그리고 석규관선생님 박상은 원장님을 비롯한 양심수 후원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어 이종린 범남분명예회장이방규통일광장대표 이영민가협어머님의 격려말씀 민족시인 이기형시인의 자작사낭송이 있었셨고 통일뉴스 이계환대표가 최근 평양 다녀온 새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회원이 장기수 선생님과 민가협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에 이어 점심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리가 비좁았지만 전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회원들은 술을 나누며 모처럼 자리에서 모여 회포를 풀고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점심을 끝내고 등글게 손을 맞잡고 서서 '함께 하자. 우리 이길'을 이라는 노래로 송년모임을 마쳤습다. 먼데서 또 가까이서 잊지않고 찾아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 경기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남한산성자리에 위치한 '고 조용수선생묘소'에서 '고 조용수민족일보사장 47주기 추도식'이 열리다. 고인의 동생이자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회장인 조용준씨와 고인의 아들 조중제씨 등 유족들과 통일운동원로들 일본에서 온 재일본민족일보연대대령회원 등 3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일본에서 온 정경모선생의 아드님이신 정상현씨 박석률 민자통상임대표등 추도사와 조용준위원장의 가족인사말 참가자들의 분향헌화를 하는 것으로 추도식을 마친다. 조용수사장은 박정희군사정권의 혁신계인사 태탄압과정에서 국가보안법죄명을 씌어 사법실인을 당했음

15 87년 KAL858기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매후』의 작가와 출판사 대표에 대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가 결국 기각돼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00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판 510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5형사부(재판장 이응세 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다.

15 용산 철도웨이홀에서 기룡전자노조후원주점이 열리다. 임미영다녀오다.

15 이북에서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이 투자한 '3세대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날 평양에서는 로동철내가 부총리, 류영섭 체신상과 투자사인 오라스콤텔레콤의 나기브사위드스 회장, 이스미일압둘 고대임후세인 평양주재 이집트대사 그리고 평양주재 각국 외교사절과 각국대표들이 초청되어 개통식을 가졌다'고 하다.

16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 200여개 정당, 단체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총회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에 즈음한 각계 선언'을 발표한다. 한성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말, 이영순민주노동당최고의원과 황수영 민주노동당총동일위원장 등 각계 대표들의 한국정부 비판발언이 있었고 이규재 범남본의장이 기자회견문낭독이 있었음. 이들 단체는 팩스등을 통해 192개 유엔 가입국 대사관에 선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한국 정부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직접 전달했다.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에서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이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 이어 차옥정 KAL858 가족회 회장의 김현희편지관련 비판 발언을 한다. 김현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장문의 편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음

17

미국소유의 전쟁비축탄약을 남쪽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WRSA-K협상'에서 남쪽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과거저장비 2조7천억 원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통일뉴스 등 언론들이 보도하다. 지난 10.17일 이른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서명한 '한국내 비축의 동맹국들을 위한 전쟁예비물자로부터의 탄약장비 및 물자의 양도에 관한 합의각서'에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과거저장비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전체 전쟁예비물자 525만 톤의 과거 저장비는 평균저장기간 30년으로 하여 톤당 17만원기준으로 단순계산해도 2조 677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이 인수할 전쟁예비물자 259천 톤의 대가로 2713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합의내용을 보면 한국이 인수탄약대가로 0미국이 가져가야 할 17.7천 톤을 2020년까지 저장할(비용 2009억 원) 2004~5년 이라크에 반출된 탄약에 대한 과거저장비탕감액 43억 원 0철도입차비 319억 원 등을 한국이 받아야 할 2713억 원 인수탄약대도 지불하는 셈이다. 그러나 상계처리항목에 2조7천억 원의 지난 30년 저장비는 전혀 없게 된 셈이다.

18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통일관련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총과 한국노동총 등 노동계, 북한관련 학계, 민주 인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650명의 이름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발표기자회견'을 열다.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결과무시, 책임회피식 입기응변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진정한 상생공영의 관개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다.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는 박형규 목사, 인총석 신부,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장희의 서울대 명예교수, 안교식 금강산관광발전협의회 회장, 홍사광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판사최병률)심리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이른바 도로교통법등 위반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광우병마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배후조정 등 터무니없는 혐의로 부당하게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임 재판부의 인정심문트과 검사의 기소요지진술에 이어 오종렬의장의 공소내용이 부당성

을 반박하고 모두진술을 하다. 오의장은 광우병위험물질을 포함한 미국소 전면수입협상은 국민건강권과 생명주권을 포기한대미굴종의교였고 어린학생으로부터유모차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의 배후조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 100만 촛불을 밝힌 사실과 집회시위의 헌법상권리를 폭력으로 탄압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한 정부당국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다.

탐골공원 앞에서 민가협737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탄압 5대악법 규탄과 법안철폐촉구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 말 장유식변호사 서경순 민가협현상임의장 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한나라당의원들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박진의원)에 야당위원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기습 상정시키다. 16일부터 이른바 질서유지권을 부당하게발동시켰고 야당의원 모르게 한나라당의원만 회의장에 들어가 출입문 등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야당의원접근을 국회경위가 불법으로 가로막고 있는 순간에 단독처리하다. 한나라당의원들의회의장을선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원들은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경원들을몰리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으나 침침이 켜진 바리케이트에 막혀 일방치리를 막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주의 폭력만행'이라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의원직수행을 불법 봉쇄한 것에 대해 박진위원장과 박계동 국회의사무총장 경호책임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법적책임을 묻기로 하다. 또한 정세균 민주당대표 등은국회의장실에서 무기한 농성에들어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이정권판사 심리로 광우병 대책회의 박원석 한용진 공동상회실장 김동규정책실장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 권혜진 홍사단활동가 등5명에 대한 이른바 도로교통법위반집시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다. 인정심문과 검찰의 기소요지진술에 이어 박원석 공동상회실장이 대표모두진술을 하다.

19

서울고법형사합의8부(최성준부장판사)는 윤기진 법정형선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개인수첩을이 적표현물소지로 판단한 원심부분을 빼고 남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1심과 같이 징역 3년 자격정기 3년을 선고하다. 이같은 부당한 판결에 윤기진 의장석방대책위원회는 법원앞에서 '법정형선남측본부윤기진의장항소심<중형선고>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6.15시대를 역행하는 사법당국을 규탄하다. 윤기진의장부인 황선씨는 부정부리제벌에게는 관대한 사법부가 동일애국인사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가혹하게 판단하는 재판부를 규탄했고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이규재범민련본부 의장 등은 6.15공동선언시대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적용과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는 사법당국을 규탄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 합의 23부(재판장민병훈부장판사) 심리로 남북공동실천연대 강진구 전집행위원장 최한옥집행위원장문경환정책위원장 광동기 한국민권연구소연구원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의 인정심문과 검찰의 기소요지진술에 이어 변호인단과 실천연대 통일일꾼들의 모두 진술이 이어진다. 변호인단은 실제현실창일 이광철 김승교 장경욱변호인이 국가보안법적용의 부

당성 이북이 대남적화통일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논리를 반박한다.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실천해오고 있는 통일운동단체라는 점 국가보안법상 집합탈출 회합통신형의 조작성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고 이적표현물제작배포 소지혐의에 대한 부당성을 각기 나누어 논거를 대어 진술하고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한다. 어어 강진구 전집행위원장은 북경 회담과 관련한 회합 및 특수집합형의 및 이적단체형의 이북에 대한 찬양고무혐의를 부인하며 이북에 대한 검찰의 대남 혁명전략이론을 반박한다. 최한욱집행위원장은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단체형의와 자신이 집필한 문건의 이적표현물이란 검찰공소내용을 반박하고 6.15 10.4선언이행의 정당성을 진술한다. 문경환정책위원장은 북미관계 등 국제관계 속의 남북문제 특히 6.15 공동선언이행의 정당성을 말하며 북신과 대결에서 화해협력과 자주통일론의 민족적과제를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하고 광동기 연구원은 이북에 대한 연구활동의 정당성 학문연구의 자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반인권책과 실천연대의 이적단체규정을 규탄한다

☞ 국제연합(UN)은 총회를 열어 이른바 대북인권결의안을 찬성 94 반대 22 기권 63표로 채택하다. 이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했고 이남정부가 공동제안에 함께 했음

☞ 이북의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이날자 <로동신문>은 논평원 글에서 '이명박정권은' 한미관계우선론'을 내들고 북미관계를 파국으로 처하게 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논평은 한미관계우선론에 대해서 '나라와민족의 운명을 이방곳까지 않고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치욕스러운 외세우선론 대미굴종론이며 미국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너절한 친미시대론이라고 규정하다.

☞ 충무로 창미디어에서 소식지 206호 교정직업을 하다. 권오현임미영

20 -----  
☞ 명동우리는 행앞에서 1000여명의 반 MB 네티즌들이 모여 '무한도전\*2 날 기다릴게' 행사가 진행되다. 'MB가 싫은 사람담'이란 글과 번호가 적혀있는 노란색종이를 흔들며 '대통령을 다시 뽑자', '서민경제 살려내라!', '조중동을 폐간하라', '한나라당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모여들다. 그러나 경찰이 곳곳에서 무한도전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가로막고 구호를 외쳤다고 '야간집회'라며 해산명령방송을 하는 등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음 '무한도전'은 지난 9일 명동 거리에서 고양이가면을 쓴 여학생이 엠비에게 열반는 사람이 매일 두 배씩 모이자'고 제안해서 이날은 2048명이 모여 야할 날이었음. 그러나 21일은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남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공동주최하는 '민생파탄 민주압살평화파괴, 이명박정부 심판 무한도전 4096. 이류MB'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21 -----  
☞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무한도전\*2 날 기다릴게' 마지막 행사가 열리다. 한 명부터 매일 두 배씩 늘어나 13일째인 21일 명동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는 최종 목표 인원인 4,096명을 훌쩍 넘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퍼포먼스로 시적하여 인근 보신각에서 등륙금 인화 공동행동을 마친 대학생들이 대거 합류하여 '이명박 OUT'을 외치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참

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MB독재 국민저항운동을 선포하며 12월 MB악법과 한나라당 의회독재를 저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6.15한미음통일산악회 산행이 있었음 (산행기보심)

22 -----  
☞ 서울 여의도국민은행 앞에서 한미FTA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저지 농성에 돌입하다. 한도속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농성에 돌입하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72석 절대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대통령의 허수아인으로 전락해 각종 <이명박 악법>을 날치기하고 있는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갔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다.

☞ 검찰은 서울시교육감선거 때 주경복후보의 선거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했다는 혐의로 송원재 전교조서울시지부장 송지부장과 이상대 부지부장 김진철 정책실장 이을지 조직국장 김민석시무처장집을 압수수색하고 송지부장 이성대 부지부장 김진 철정책실장을 체포하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이을제 조직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생민주 국민회의'는 '독재회귀-MB악법 저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역행이 한꺼번에 극단적으로 몰아치는 이 전대미문의 역사적 위기는, 깨어있는 모든 이들이 단호한 결단과분연한 행동을 요구한다'면서 31일까지의 계획을 밝히다. 이날 시국대회에선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노동자.농민.서민.인론.인권교육 등 각계각층의 MB 악법 저지 결의를 모을 것이라고 국민회의측은 밝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 206호 발송작업을 하고 총 991부 해외의 17부를 회원들에게 발송하다. 발송작업에는 박희성 문상봉선생님과 조순덕어머니 소수영 임미영 함께 하다

23 -----  
☞ 이북의 <노동신문>이 김희중 통일부장관에 대해 '북남관계 파탄을 일삼는 대결분자'라며 맹공하고 나선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이명박 패거리들은 누구라 할 것없이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까지 들어찬 대결광신자들이다"며 "통일부' 장관 김희중이 바로 그 앞장에서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문은 김 장관이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을 비롯해 기간 행보와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으며, "최근 김희중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는 데서 '빠리살포 문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느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제지시키기 위한 '법안' 채택에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었다"고 적시했다. 신문은 "현실은 북남관계 악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하며 대결소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는 이명박과 그 폐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파국적위기는 절대로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응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안동교도소로 소내 처우개선을 위해 20여일에 이르는 단식투쟁 중인 정창원님을 면회하다. 소장면담을 통해 정창원동지 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장소이동정적은 허락되지 않아 일면회회를 통하여 소장과의 면담내용을 전하고 소측과 약속이 이루어지면 단식을 중단하기로 하다. 이어 이진강님을

면회하는 중에 병동에서 벌어진 수감지의 자살사건에 대해 자세히 전해듣고 교도소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강구책을 논의하기로 하다. 변외성회원 이광렬구노회사무국장 포항건철노조 심진보님 임미영 함께 하다.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최로 농민 노동자 교육계 환경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명박 1년 독재 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가 열리다. 1부 행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반민중정책을 규탄하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헌대사 그 어느 순간보다 침담하고 심각한 비상사국"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와 강부자 한나라당의 거침없는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맞서 분연히 싸울 것"을 결의하다.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전농 전성도시사무총장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회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녹색연합 최승구사무처장 등 각계발언과 문대골목사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 노회찬 진보신당대표 정동익 동아투위위원장 정진화 전교조위원장 등 종교 정당 원로들의 발언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법안' '국가정보법안' '집시법개정안' '신문법안' '과거사위 통폐합 법안' '북인권법안' 등 39개 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중요악법으로 선정하고 이를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철수, 신지호, 공성진, 나경원, 김성조, 정병국, 박종희 등을 '민주주의, 민생파탄 악법 7적'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서기로 하다. 시국대회에는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상임공동대표, 민기협양심수 후원회 권오환회장,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대표, 범민련이규재의장,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민주노동당 이수호최고위원, 진보신당 노회찬공동대표, 사회당 최광은대표, 창조 등이 참석하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이하 6.15 부산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부산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 남천동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사무실 앞에서 북한인권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다. 또한 6.15 부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 6.15 부산본부 상임대표는 여는말 허성원 범민련부경연합 부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서울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평통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합의, 협정 기간 5년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을 취소하고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유영재 평통시정책실장 허영구 민주노동총부위원장의 규탄발언과 권오환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이북의 조국통일연구원은 '북남관계를 오늘의 험악한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이 누구이며 북남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폭로단죄하기 위한 고발장'을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고발장은 첫째 6.15 10.4 선언 존중인가 부정인가 둘째 대화와 협력을 진짜로 바라가나 하는가 셋째 상생공영과 진정성의 정체는 무엇인가란 세 토대들에서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발표했거나 책임있는 사람들의 발언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6.15 10.4 선언을 유린한 반동적 죄행 '을 고발하며 그 이행여부를 분명히 하라고 했으며 <대화>와 <협력>이니 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복 대결지세와 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패야말로 백해무익하다'고 비난하다. 또한 <상생공영>과 <진정성>을 말하

는 뒤편에서는 미국의 도전세력과 결탁 동족을 치기위한 칼을 버리고 있다 고 강하게 비난하다.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안병길목사(후원회운영위원)가 담임하고 있는 팡야교회에서 '배따라기 양현경과 함께 하는 2008년 성탄축하예배 및 공연'이 진행되다. 신자와 비신자 또 타종교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안병길목사의 성탄설교를 듣고 성탄을 축하하고 송년의 뜻을 새기는 모임이었다. 팡야교회신자들 오감시통회원 만남의집선생님들 양심수후원회회원 전교조선생님들 정교회서성원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함께 하다. 안병길목사는 예수믿고 천당가라는 식의 아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공동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다. 2부 행사는 배따라기 양현경님이 성탄축하 노래공연이 있었고 떡만두국에 김호현회원이 가져온 북본자술로 점심을 나누다.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비상시국회의 전문가자문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한미FTA 국회 비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배사태 한국구토릭농민회 회장 등의 발언이 있었음. 공동 기자회견에는 '한미FTA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공동대표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민노당 강기갑대표, 이정희의원과 박석운 한미FTA범국민 공동집행위원장 허영구 민주노동총부위원장, 한도숙 전농의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최상재-언론노조)이 한나라당의 신문방송법 등 7대 언론관련법 등을 막기 위해 이 날짜로 총파업에 들어가다. 언론노조는 국회이근 국민은행 앞에서 2000여조합원이 함께 한 가운데 '언론장악 7대 악법저지, 언론노조총파업출정대회'를 열고 개별과 수구족벌신문이 언론을 갖다비칠 언론장악7대악법은 일당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술책이라고 규탄하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박성재 MBC본부위원장 노준명 YTN본부위원장 등이 총파업결의 발언이 있었고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 노회찬 진보신당대표 등 연대사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정범구 대화협력위원장을 통해 언론노조총파업을 지지하다. 최상재위원장 등 각 신문사 방송사 본부장들은 '삼정제벌에 뉴스넘기는 신문법, 외국자본침투시킨 방송법, 신문재벌 방송편의 파주는 IPTV법, TV주파수 빼앗는 전파법, 사이버모욕죄포함한 통신망법, 수구족벌 조종, 동살라기 디지털전환법, 인터넷 여론통제용 언론중재법이라고 쓴 7개의 얼음덩어리를 해머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벌이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 홍준표 한나라당원내대표 고홍길 문방위원장 장병국, 나경원 한나라당의원을 '언론5적'으로 규정하다.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동당 대표단은 'MB악법 강행하는 이명박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이정희, 권영길의원이 공동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요즘 정가엔 청와대가 하품하면 국회에서는 칼바람이 몰아친다는 말이 나돈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통범부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서한 전달을 하려했으나 경찰병력에 의해 막히자 대표단은 경찰병력 앞에서 항의서한을 불태우다. 박승흠 대변인은 항의서한 전달을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하면서 국회로 돌아가 결사

향전할것이라고 하다.

☞ <민족21> <후원회소식>206호, 영치금을 양심수 63명에  
게발송하다.

27~28

☞ 이시우평화사진작가와 부인 김은옥님이 주선한 이시우작  
가와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피해가족과 함께 하는 한강하  
구 송년행사'가 강화일대에서 진행된다. 이시우작가의 안내  
와 해설로 연미정 승천포 고인돌 등을 답사하고 저녁시사를  
한다음 행사장인 '호수의 집에서 뭉쿨기를 시작으로 참가  
자 소개시간에 이어 심재환변호사의 국가보안법사건법정  
공방내용 등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뭉쿨  
님의인형전시 이시우작가의 사진 및 저서전시 황선님이 시  
집전시장을 돌아본 후 푸집한안주와 저마다 가져온 들쭉술  
인삼주 등으로 푸집한 뒤뭉쿨기를 하면서 숨겨진 노래솜씨를  
겨루며 송년모임의 밤을 보낸다. 이튿날에는 '생명평화 100  
배 성원을 이시우작가지도도로 진행하고 강화지역해안을 답  
사하는 것으로 1박2일의 일정을 마치다. 송년모임에는 장기  
수선생님 김영식 강담 선생님이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진 전  
창일선생님 양심수가족으로 구선우 황선 송현아 하유진님  
미술평론가 김재영선생님 사월혁명회 이나호선생님 전정파  
해유주 박복자님 항일교회 조현정목사님과 김태준교수 홍  
대국선생님 국가보안법3보1배를 했던 오철근선생 일본에  
서 온 평화활동가 기무리히데토씨 박재신 전한시대교수 황  
순녀평통사회원 민기협 조미영간사 인형작가 김형주씨 양  
심적병역거부다큐제작 등 영화감독 김환태님 심재환변호사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 등 함께 했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주최로 '남북관계  
파탄법 제정시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재 상임공동대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박희진 부의장  
등의 발언에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의장이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다.

☞ 여의도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MB악법저지 비상국민행  
동주최로 '한미FTA국회비준, 신문법-방송법 개악, 반민  
생-반민주 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 결의대회가 열리  
다. 권오현 민기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여는 말 박정권 민  
주노동부위원장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김민영 참여연대사  
무처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정범구 민주당 대외협력위  
원장 및 각 단체성원들의 발언과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이  
어 6시부터 촛불문화제를 열고 한나라당사까지 촛불행진을  
하려했지만 경찰의 폭력제지로 해산하다.

☞ 정동 프란체스코 교우회관에서 사회각계인사 279명 이름  
으로 '언론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선  
언 기자회견'을 열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임재경 원로  
언론인 등 이명박정부의 방송언론장악기도를 규탄하고 언  
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결의발언이 있었음. 기자회견  
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프레스센터 언론노조사무실을 방문  
지지연대의 뜻을 전하다.

☞ 한나라당 홍준표원내대표는 김형우 국회의장에게 '질서유  
지권 발동과 함께 입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최종확정된  
85개 법안을 '직권상정' 하라고 요청하다. 이는 질서유지권  
을 발동 민주당농성의원 강제해산 직권상정 MB악법 강행  
처리수순을 밟고 있는 독재체로의 회귀 발생이다.

☞ 이스라엘이 27,28일에 걸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해 280여 명이 사망하고 800명  
이상이 부상하는 등 이 지역에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41년 만에 최대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하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하마스가 운영하고 있는 알-아크라브항공과 이  
슬람사원까지 폭격하는 등 반인륜적 살육민행을 저지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분쟁종식을 촉구  
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예비군 6천700  
명의 동원령을 승인하고 가자지구 점령지대로 지상군 병력  
을 집결시키는 등 지상작전에 돌입할 태세에 들어갔다.

☞ 사당동 '미송복이구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를 열다. 권오현회장의 회의의사말에 이어 임미영  
사무국장의 지난 회의록보고와 재정보고에 있는 다음 안전  
심의가 있었음. 안건으로는 21차총회준비 법인체 '민남의  
집' 명칭변경건과 MB악법인발처리에 대한 후원회의 대응  
과 임원선출 후원회사사무국의 활성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  
였음. 권오현 김호현 소수영 김동원 임병길 모성용 장정욱  
김혜순 임미영 탁무련이 기구용 참석하였음

29

☞ 법무부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복원·법질서확립 등 핵심전략과제와 실천계획을 대통령  
에 보고하다. 자유민주적 질서복원을 위해서 이를 부정하는  
안보침해사법에 엄정대처하고 공안조직 및 기구를 정비하  
며 인력조직, 예산복원으로 공안기능강화 청소년중심 헌법  
교육강화, 국가정체성 정립, 보편적가치에 입각한 복인권문  
제정근, 정당한 법집행을 인권탄압으로 왜곡하는 주장에 적  
극 대응하기로 하다.

☞ 촛불시위 등과 관련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혐의로 지난  
12,5일 체포 구속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석행 민  
주노동위원장을 면회하다. 체포된 뒤 곧바로 부당한 탄압에 항  
의단식투쟁을 해오던 이석행위원장은 21일 단식을 중단한 상  
황이었음. 장소변경집견에는 민주노동 진영 옥수석부위원장  
최재춘 노사대책위원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이 함께 했음

☞ 의정부교도소에 이른바 석공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김명  
호선전대교수를 장소이동집견 하였음. 김명호대책위가 재  
구성되면서 지난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석방운동과  
혈은감정 국회청원 관련하여 김명호교수의 요구와 대책위  
의 활동방침에 대해 의견개진하였음. 변의성회원 이광렬구  
노회사무국장 임미영 함께 하다.

☞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미FTA농축수산물상대책위원  
회(농대위)' 주최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500여 명이 모  
인 가운데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  
고, 직권상정을 요청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다. 윤오근 농민연  
합 상임대표는 대회에서 이어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장의 발언 허영구 민주노동 부위원장 노희찬 진보산당 공동  
대표 등이 연대발언과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 여의도국민은행 앞에서 '비상국민행동'주최로 'MB악법저  
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다.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각계 단  
체의 자유발언등과 문예공연이 있었음. 언론노조파업에 적  
극 참여하고 있는 MBC노조본부 박성재본부장 정범구민주  
당대의협력위원장등 결의 발언이 있었음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농민 100여명이 한나라당사등 여의도 곳곳에서 기구  
시위를 벌이기도 하다. 국민대회에 이어 전국목회자 정의평

화실친협의회주최 'MB악법저지를 위한 철야시국기도회'가 열려 최헌국목사 등 결의발언과 노래패 '천지인' 등 문예공연 등이 진행되었으나 밤 11시쯤 경찰이 기도회 참석자를 에워싸고 해산명령방송을 하다. 이어 무대를 폭력으로 점거 음향조명을 끄는 행패를 부린다. 이어 항의하는 시민 5명을 연행하고 참가자들을 고착하고 있었을 때 민주당 최문순최인기의원 등이 와서 강제해산조치를 무마 자진해산하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초동회의실에서 'MB악법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다.

미국방부산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NDU) 부설 대량살상무기(WMD) 연구센터가 지난 5월 발간하여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WMD' 근절을 위한 국제파트너쉽(International Partnerships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고서에 따르면 미태평양군사령부가 한국군과 함께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확산위성그룹'을 설치했다고 밝힌다. <WMD제거>를 하는 의미는 국가 또는 비국가기구의 WMD프로그램을 그와 관련된 능력의 위치와 성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안전을 확보하고 불능화 및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다.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홍우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바있는 이시우 사진작가에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한호석씨 글 등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면서도 이시우작가가 '민통선평화기행' 등을 저술하고 통일뉴스전문기자로서 합법적인 집필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적목적성이 없어 무죄선고한다'고 하다. 이시우작가와 가족변호인 방청인들은 재판을 마치고 12시경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우작가의 무죄선고소감 변호인들의 선고내용에 대한 의미 김제대 미술평론가 권오환 양심수후원회장 등이 방청소감을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공안 1부(공상훈부장검사)는 양국의 허가없이 이북에 다녀오고 미국에서 이북인사들을 접촉했다는 혐의로 재미동포(영주권자)로 전쟁반대사카고협의회회원인 정영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하다. (12.5일기시보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언론노조조합원 2000여명은 '언론쟁악저지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언론노조총파업2차대회를 열다. 5일째 전면파업에 나선 CBS와 EBS시부노조원 YTN SES방송사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신문. 지역언론 등이 참여하다. 양승동 공영방송사수를위한 KBS사원행동 대표 최성재 언론노조위원장 초기위원장을 지냈던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등이 잇달아 이명박정부의 방송 언론쟁악기도를 성토타다. 최성재위원장과 각 지부장본부장들은 조중동신문으로 둘러쌓인 명박산성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갖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밤 같은 자리에서 30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열다. MBC노조 노래패 '노래사랑' 등 각 언론사 노래패공연, 흥세화 한겨레신문기획위원 검찰소환을 받고 있는 MEC PD수첩의 이춘호 PD 등이 무대에 올라 방송 언론사수 발언을 하다. 촛불문화제를 마친 노조원들은 MBC로 이동하고 이어 같은 자리에서 '시국법회'와 민주노동당의 결의대회가 잇달아 열렸고 마지막까지 네티즌들은 길거리 강연을 하며 밤을 새우다

전국양심수에게 양심수후원회대표의 새해인사말과 함께 <말지> 1월호를 발송하였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랍적공습으로 200여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 전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살육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다. 레바논의 베이루트. 이란의 테헤란 이집트의 아시우트와 알렉산드리아 터키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에멘 등 아랍 나라들에서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기를 불태우며 공습중단을 촉구했고 아테네 베를린 코펜하겐 런던 파리 등 유럽 여러나라의 도시에서도 항의시위가 벌어지다. 오직 미국 부시 행정부만이 이스라엘을 옹호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살육민행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로 중등평화과정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으로 간주.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장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효관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에 벌금 80만원 총선당시 선거사무장인 조수현씨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다. 현행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은 300만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기갑대표는 의원직이 유지되게 된다.

MB악법저지관상정을 막기 위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이 6일째로 접어드는 자정. 국회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질서유린 발동규탄 및 날치기처리저지결의대회'를 열다. '휴대폰도청 재발방송 재발은행 결사반대'라고 쓴 대형 편침말을 펴고 강기정의인 사회로 원혜형 민주당원내대표 강기갑 민노당대표 박지원 민주당의원 등의 결의발언이 있었고 한나라당의 새벽기습에 대비하고 있음

MB악법-비상국민행동은 이날 낮 국회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을 정리하며 2009년 가장 빠른 시일안에 이명박독재정권퇴진운동본부 결성과 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하다. 이어 10시30분 탐골공원에서 MB악법반대총발대회를 열고 보신각을 이동하기로 하다. 그러나 경찰은 10시가 되기 전 탐골공원 주변에 경찰차력을 쌓고 수백명 병력을 풀어 시민들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음. 촛불집회에 참석한 탐골공원일대 시민들을 고착시키고 보신각으로 이동을 꺾적이 가로막아서다. 그러나 촛불참가시민들은 속속 보신각으로 모이고 있었음 각각 손피켓과 고무풍선 촛불을 들고 11시쯤 보신각 앞마당을 뺨뺨이 채우다. '2MB OUT' '아류 2008' '아류MB' 각종 반이명박손피켓을 들고 이명박퇴진구호를 외치다. 이윽고 2008년이 지나고 2009년을 알리는 타종이 시작되자 촛불대열은 폭죽을 터뜨리고 고무풍선을 날리며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연호하다. 타종하는 오세훈 공정택 등 얼굴이 대형스크린에 비추어지자 우하는 함성이 종각일대를 진동시키다.



■ 우리겨레 하나되기 본부에서 북녘어린이가 콩우유등기에 김동선생님, 안병길 이호승 회원 그 외에 여러분이 모아주셔서 12월 3일 5,000,000원 보냈습니다.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